성북,
100인을
만나다

sb 성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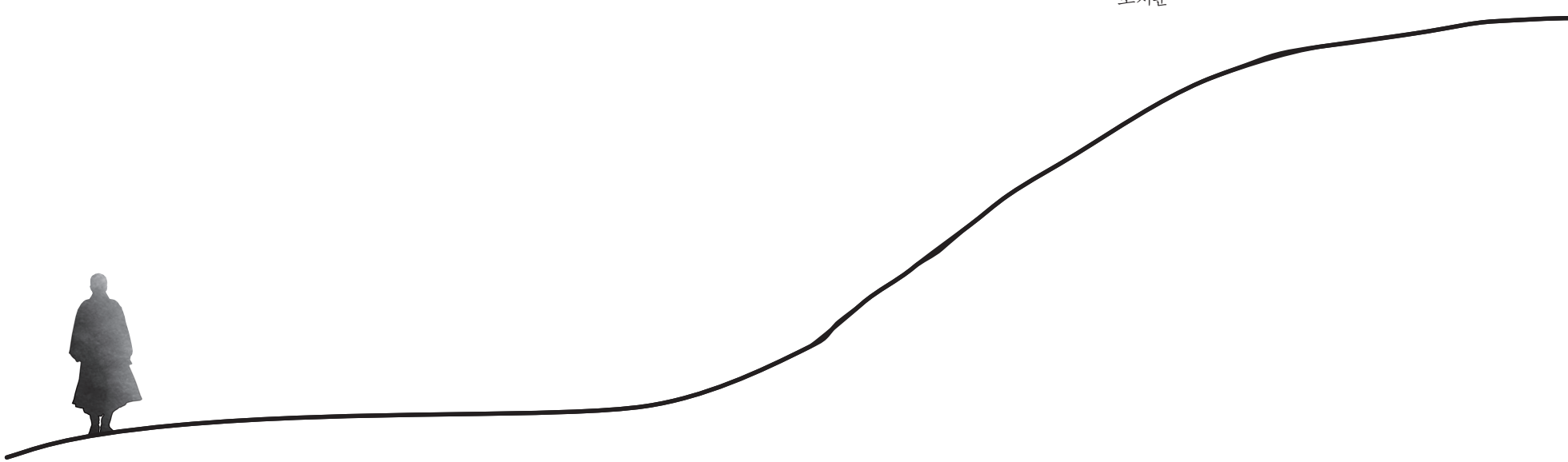
성북,
100인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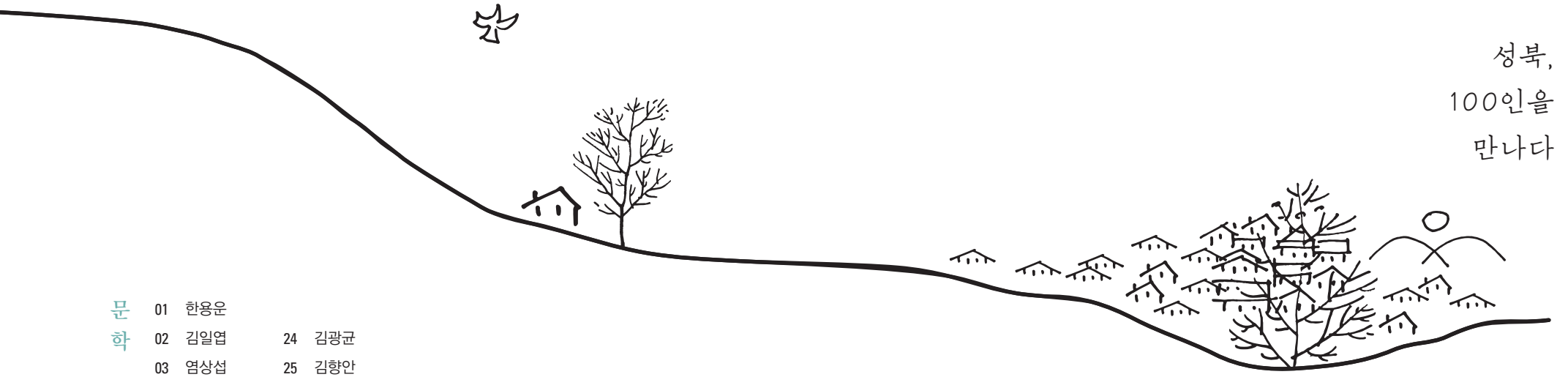
sb 성북

서

내가 선생을 처음 뵈온 것은
정축년(1937) 여름인가 한다.
그 때 나는
성균관 뒤에 살았기 때문에
고개 하나만 넘으면
성북동의 심우장-선생의 우거寓居로
찾아 뵐 수가 있었다.

- 조지훈 -





성북, 100인을 만나다

문학
01 한용운
02 김일엽
03 염상섭
04 방인근
05 서항석
06 정지용
07 주요섭
08 박화성
09 양주동
10 이은상
11 이태준
12 김용준
13 계용묵
14 김광섭
15 최정희
16 윤오영
17 김유정
18 오영수
19 박태원
20 김내성
21 안수길
22 박계주
23 김동리
24 김광균
25 김향안
26 박연희
27 전광용
28 조영암
29 조연현
30 조지훈
31 김종삼
32 김수영
33 김구용
34 한운사
35 정한숙
36 정한모
37 차범석
38 박경리
39 신동엽
40 박완서
41 이호철
42 안동림
43 고 은
44 이어령
45 신경림

미술
46 장승업
47 변관식
48 장우성
49 김기창
50 박세원
51 서세옥
52 김성환
53 신영상
54 송영방
55 정탁영
56 임송희
57 이규선
58 윤중식
59 김환기
60 한 묵
61 이중섭
62 박고석
63 황염수
64 김종하
65 박래현
66 변종하
67 표승현
68 전성우
69 오 윤
70 김종영
71 권진규
72 송영수
73 최만린
74 유치웅
75 김충현
76 정환섭
77 강창규
78 김중업

음악·무용
79 조택원
80 김명환
81 박봉술
82 강선영
83 김진걸
84 김진진
85 이생강
86 채동선
87 전수린
88 한규동
89 이인범
90 윤이상
91 김대현
92 이봉수
93 이관옥
94 전봉초
95 금수현

문화
96 이홍근
97 박병래
98 임석재
99 전형필
100 최순우

부록
성북백인 동정
지도
문화유산
색인
출처

문학

01 한용운 ~ 45 신경림

일러두기

인용문은 원 자료의 표기법을 살려 그대로 표기하였다.
인용문과 사진 자료의 출처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잡지는《 》, 단행본은『 』, 문학작품은「 」, 그 외의 작품은〈 〉로 표기하였다.
수록인물의 순서는 분야별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01

한용운

萬海 韓龍雲

1879~1944
충남 홍성 출생
성북동

독립운동가이자 저항문학에 앞장선 시인이며, 불교의 자주화를 주장하던 승려이다. 1913년『조선불교유신론』에서 조선 불교의 현실을 비판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전국을 다니면서 일반 대중과 승려에게 불교 강연을 열었고, 불교계를 대표해서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하였다.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정의와 평화,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는 글을 집필하였다. 대표작「님의 침묵」외에 시, 소설, 논설문 등 여러 편의 글을 남겼으며, 불교잡지《유심惟心》을 발행하였다. 1933년 승려 김벽산이 기증한 성북동 땅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앞면 4칸, 옆면 2칸짜리 집을 짓고 '심우장尋牛莊'이라 했다. '심우장'은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다 하여 북향으로 집을 짓고, 나라를 뺏긴 현실이 감옥과 같은데 어찌 불을 지필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자신의 안위安慰를 위하지 않았다. 세상을 뜰 때까지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였다.

심우장

심우장

한 용 운

잃은 소 없건마는,
찾을 소 우습도다.
만일 잃을시 분명타면,
찾은들 지닐 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02

김일엽

金一葉

1896~1971
평남 용강 출생
성북동

시인이자 승려이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신여성으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주장하고, 스스로 관습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근대 교육을 받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유학시절 만난 소설가 이광수가 일본 여성작가의 이름을 따 '일엽'이라는 필명을 지어줬다. 일본에서 돌아와 1920년 잡지《신여자》를 창간하고, 소설과 시, 평론을 발표하는 한편 신여성 모임을 이끌어 나가며 여성들의 교육과 의식 개혁을 주장하였다. 몇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굴곡을 겪은 뒤 만공선사 문하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1930년대 초 성북동에서 잠시 생활하였으며, 말년에 성북동 성라암星羅庵을 오가며 지냈다.

03

염상섭

橫步 廉想涉

1897~1963
서울 출생
돈암동, 성북동

1921년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문학으로 평가받는「표본실의 청개구리」를《개벽》에 발표하며 등단한 소설가이다.「만세전」과「삼대」등 식민지 현실과 반일감정을 작품 속에 그려냈고, 해방 후에는 좌·우익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주의 문학을 선보였다. 변영로, 오상순 등과《폐허》의 동인同人으로 신문예운동을 전개하였다. 술을 좋아해 술에 취해 옆으로 걷는다는 뜻의 '횡보橫步'라고 불렸다. 만선일보 편집국장으로 10여 년 동안 만주와 신경에서 생활하였다. 해방이 되어 1946년 귀국하였고, 정지용의 권유로 그가 주간이던 경향신문 창간 편집국장을 지냈다. 돈암동 295-3번지에 살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서울로 올라와 상도동, 삼양동 등 몇 차례 이사를 한 끝에 1962년 자리 잡은 성북동 145-52번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04 방인근

春海 方仁根

1899~1975
충남 예산 출생
성북동, 장위동

시인이자 소설가, 출판인이다. 1923년 시 「하늘과 바다」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24년 순수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투자하여 《조선문단》을 창간하였다. 《조선문단》은 첫 순수문예잡지로 문단과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잡지사 사무실은 염상섭, 양주동, 현진건, 박종화, 김동인 등 당시 활동하던 문인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잡지 발간 이전부터 시와 소설을 썼고, 『마도의 향불』, 『방랑의 가인』 등 대중성 있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여 자신의 호를 딴 '춘해프로덕션'을 설립하기도 했다. 사재를 털어 잡지를 발간하느라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셋방을 전전하였는데, 말년에는 성북동 언덕바지 허름한 집에 살다가 장위동 230번지에서 생을 마쳤다.

05 서항석

耿岸 徐恒錫

1900~1985
함남 홍원 출생
동선동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다.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하며 독일 희극에 관심을 갖고 1931년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윤백남, 유치진, 이헌구 등이 창립에 참여하였고, 김광섭, 이무영, 윤석중 등 문인들도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외국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창작극을 무대에 올리는 한편, 조선연극사, 연출법, 연극 상연목록 등 공연 관련 정보를 실은 잡지 《극예술》을 발간하여 연극 이해를 도왔다. 1938년부터는 동아일보 학예부 기자를 그만 두고 연극 활동에 매진하였다. 해방 후 국립극장 설립에 힘써 유치진에 이어 2대 극장장을 지냈다. 〈파우스트〉를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공연한 공로로 독일 정부가 주는 괴테훈장을 받기도 했다. 서라벌예대에서 후학을 키우며 연극 이론을 연구하였고, 연극 연출, 극단 운영, 연극 비평 등 우리나라 연극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해방 전 동선동에 거주하였다.

06 정지용

鄭芝溶

1902~?
충북 옥천 출생
돈암동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어詩語로 우리나라 현대시에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다. 김영랑, 이하윤들과 동인지 《시문학》을 내고, 이태준, 박태원, 유치진들과 '구인회' 활동을 하였다. 이태준과 함께 한국문단에 추천제를 정착시킨 《문장》의 심사위원을 맡아 청록파 시인-박목월 · 조지훈 · 박두진을 발굴하였다. 1930년대 '시는 정지용, 소설은 이태준'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휘문고보 선후배인 두 사람은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였다. 대표시인 「향수」는 채동선과 김희갑이 곡을 붙여 널리 알려졌다. 일본 유학 후 종로구 효자동, 재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지에 살다 1946년 돈암동으로 이사하였다. 같은 해 『지용시선』을 발간하였다. 경향신문 주간과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녹번리 초당에 은거하다가 한국전쟁 때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된 뒤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납북 당하여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

07 주요섭

餘心 朱耀燮

1902~1972
평남 평양 출생
돈암동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이다. 「불놀이」를 쓴 시인 주요한이 형, 극작가 주영섭이 동생인 문학가 집안이다.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하였다. 1921년 매일신보에 단편 「깨어진 항아리」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1935년 《조광》 창간호에 발표한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작가로서 명성을 높였다. 1954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창립동인으로 양주동, 서항석, 김광섭, 백철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코리아 타임즈》 주필과 한국문학번역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영문학자로 한국문학의 번역에 힘썼다. 중국에 있을 때 1943년 일본의 대륙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령을 받아 귀국하여 돈암동에 자리 잡았다. 이때 돈암동을 배경으로 한 연재소설 「길」을 발표하였다.

조선문단

1924년 10월 창간호가 나온 뒤 10년 동안 통권 26호까지 발행되었다. 방인근은 통권 17호(1926년 6월호)까지 발행인으로 참여하였다. 몇몇 사람의 글을 모아 내는 동인지나 교양잡지밖에 없었을 때 순수문학을 하는 작가 모두에게 지면을 제공하였다. 1천 5백부를 찍은 창간호가 며칠 만에 매진되어 재판을 찍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광수가 소설, 주요한이 시, 방인근과 전영택이 기타 분야의 원고를 선정하여 잡지에 실었고, 작가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신진 작가 양성에도 기여를 해 종간까지 박화성, 채만식, 계용묵, 안수길 등 근현대 우리 문단에 이름을 남긴 많은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하였다. 또한 소설이나 시조를 쓰는 방법에 대해 작가들이 글을 연재하여 문학지망생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인회九人會

〈시와 소설의 밤〉
동아일보, 1934.6.29

1933년 8월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이무영, 유치진, 이효석, 이종명, 김유영, 조용만이 결성한 문학 모임이다. 9월 1일자 신문에 '순연純然한 연구적 입장에서 상호의 작품을 비판하며 다독다작多讀多作을 목적으로 한 사교적 클럽'이라고 소개되었다. 얼마 뒤 모임에서 나가는 사람이 생겨 박태원, 이상, 김유정, 김환태가 들어왔으나 모임 이름처럼 늘 아홉 명을 유지하였다. 순수문학을 지향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문학에 대한 토의를 하고, 강연회를 몇 차례 열었다. 1934년 종로 청년회관에서 연 〈시와 소설의 밤〉은 '창작의 이론과 실제'(이태준), '언어와 문장'(박태원), '시 낭독'(정지용), '시의 근대성'(김기림) 등의 내용으로 연 강연회이다. 월간지 《시와 소설》을 한 회 발간(1936년) 하였다. 구인회는 각자의 문장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문인들이 참여하며, 순수문학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08 박화성 素影 朴花城

1903~1988 | 전남 목포 출생 | 정릉동

정릉동 집에서 세 아들과, 1959
(왼쪽부터 승걸, 승세, 승준)

구월 초순에 경향신문에 연재 중인
「내일의 태양」을 육십 회가 자칫 넘어서
영화사에 넘겠더니 적으나마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정릉에 이십 평짜리 집을
샀는데, 대학생 셋의 학비를 부담하고
병자를 낀 살림을 하면서 그래도 삼십만
환 전셋집에서 이만큼 늘려 온 자신의
힘이 신통하게도 생각되었다.
– 박화성, 「눈보라는 개이려나」 –

소설가이다. 1925년 춘원 이광수가 추천한 「추석전야」로 《조선문단》을 통해 등단하였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백화」는 여류 문인이 쓴 첫 장편연재소설로 동아일보에 6개월 동안 연재되었다.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상을 작품 속에 그려냈다. 동화로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하고, 희곡이나 수필, 자전 소설 등 다방면의 글을 썼다. 한국여류문학인회와 국제펜클럽에 참여하며 같은 시기 활동한 최정희, 한말숙, 모윤숙 등과 교유하였다. 1958년 정릉동 130-1번지에 ㄷ자 구조인 스무 평 남짓 되는 한옥을 마련하였다. 1963년 하월곡동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정릉집은 고향 목포 출신 예술인들과 문단 후배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었다. 친구 동생인 극작가 차범석이 서울에 왔을 때 친누나처럼 직장을 알아봐주고, 서울 정착을 도왔다. 큰 아들은 문학평론가, 둘째는 소설가, 셋째는 영문학자로 모두 어머니를 이어 문단에 몸담고 있다.

09

양주동

无涯 梁柱東

1903~1977
개성 출생
돈암동, 동선동

시인, 국문학자 겸 영문학자이다. 1919년 《문예공론》을 염상섭과 함께 발간하고, 시와 문학평론을 썼다. 해방 후 대학에 몸담으며 향가와 고려가요 연구에 매진하여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硏究』, 『국학연구논고』, 『여요전주』 등을 집필하였다. 스스로 '인간 국보 1호'라고 말할 만큼 머리가 뛰어났고, 재치가 있었다.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가곡 〈어머니 마음〉은 양주동의 시에 이흥렬이 곡을 붙인 노래이다. 술을 즐겨 현진건, 김동인, 염상섭, 이은상 등과 어울리며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 1960년대 초 돈암동에 살다가 동선동 3-4번지 자택에서 작고하였다.

10

이은상

鷺山 李殷相

1903~1982
경남 마산 출생
안암동

시조시인이자 사학자이다. 1920년대부터 《조선문단》 같은 잡지에 시, 평론, 수필 등을 발표하였다. 자유시와 외국시에 대한 관심이 전통 문화와 시조로 옮겨가며 시조 연구와 시조 창작을 하였다. 이은상의 시조에 김동진, 홍난파, 윤이상 등이 곡을 붙인 「가고파」, 「봄처녀」, 「성불사의 밤」, 「낙동강」 등 가곡 1백 여 곡이 전한다. 또, 충무공 이순신 연구와 선조들의 전기, 국토순례기행문을 여러 편 남겼다. 《신가정》 편집인, 조선일보사 출판국 주간을 지냈고, 서울대 · 영남대 등 대학 강단에 섰다. 저서로 『노산시조집』, 『푸른 하늘의 뜻은』 등이 있다. 1960~70년대 안암동 104-43번지에서 거주하였다.

11 **이태준** 尙虛 李泰俊

1904~? | 강원도 철원 출생 | 성북동

1925년 《조선문단》에 「오몽녀」로 등단한 소설가이다. 휘문고보에서 가람 이병기에게 문학을 배우고, 일본에서 유학하였다. 서정적이며 섬세한 묘사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인 소설로 근대시기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 작가로 꼽힌다. 1934년 성북동 248번지에 고향집과 닮은 집을 짓고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 이름 붙였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서 탁본을 떠 직접 편액을 만들어 걸고, 기와집에는 문향루聞香樓, 죽향루竹香樓, 초가집에는 상심루賞心樓라는 편액을 달았다. 난, 파초나 서화, 골동품을 완상玩賞하는 취미를 가져 집치레에 얽힌 일화를 수필로 남기기도 했다. 「밤길」, 「가마귀」 등 단편집을 발간하고, 조선중앙일보 학예부 기자, '구인회' 참여 등 성북동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일본 유학시절 만난 근원 김용준과 이웃으로 살며 각별하게 지냈다. 이태준의 책 『달밤』, 『복덕방』, 『돌다리』의 장정을 김용준이 하였다. 1939년 창간된 월간 문학잡지 《문장》의 주간을 맡아 순수 문학을 지향하고, 문학 작품 뿐 아니라 국문학 논문을 소개하고, 신인 추천제로 신진 문인을 발굴하였다. 정지용, 김용준, 길진섭 등이 참여하였다. 해방 후 좌익계열 문학단체 활동을 하다 1946년 무렵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태준은 1939년 창간된 《문장》의 주간을 맡았다. 장정은 김용준이 하였다.

성북동 집에서 이태준 가족

성북동 집에서 김용준 가족

여러 해 별러 초려草廬 한 칸을 지어놓고 공부할 책권冊卷과 눈을 쉬일 서화 몇 폭을 걸어놓고 상심루賞心樓란 현판을 얻어 걸어놓은 지 이미 7, 8년. 그러나 하루를 누累없이 상심낙사賞心樂事한 적이 별로 없다.
– 이태준, 「난」 –

앙상한 나무들과 까치집과 싸리 울타리와 괴석과 흰 눈과 그리고 따스한 햇볕. 이것들이 노시사老柿舍의 겨울을 장식해 주는 내 유일한 벗들이다.
– 김용준, 「동일冬日에 제題하여」 –

12 김용준 近園 金瑢俊

1904~1967 | 경북 대구 출생 | 성북동

화가이자 미술사학자, 수필가이다.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고,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웠다. 귀국 후 장승업의 그림을 보고 동양화에 심취하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미술사를 연구하였다. 「오원일사吾園軼事」, 「조선조의 산수화가」, 「조선미술대요」 등 논문과 당시 활동하던 화가들에 대한 평론을 발표하였다. 이태준, 정지용 등 문인들과 교분을 맺으며 문예지와 책 표지화를 그렸다. 고등학교 때 통학을 위해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65-2번지에 살았고, 혼인 후 성북동 32-2번지에 집을 구했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소설가 이태준은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이라고 하여 '노시산방老柿山房'이라는 당호를 지어주었다. 집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나무가 울창했다. 마당에 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키우고, 수석을 곳곳에 두고 즐겼다. 노시산방은 1944년 의정부로 이사할 때 신혼살림을 차린 서양화가 김환기와 수필가 김향안 부부에게 넘겨주었다. 김환기는 김향안과 혼인할 때 김용준의 아내가 지어 준 모시 겹두루마기를 입고 혼례를 치루기도 했다. 우리나라 수필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근원수필』을 내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중 한국전쟁 때 월북하여 1967년 사망한 것으로 전한다.

『근원수필』 초판본, 1948

13 계용묵 桂鎔默

1904~1961 | 평북 선천 출생 | 정릉동

소설가, 출판인이다. 1925년 《조선문단》에 단편소설 「상환」과 시 「봄이 왔네」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1935년 같은 지면에 실린 단편소설 「백치 아다다」가 주목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후에 이강천과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고, 드라마와 무용으로도 제작되었다. 『병풍에 그린 닭이』, 『별을 헨다』 등 소설집을 냈다. 해방 후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편집자로 일하였다. 한국전쟁 때 피난 간 제주도에서 현지 문학인과 문학지망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종합잡지인 《신문화》(1952)와 동인지 《흑산호》(1953) 발간을 주도하고, 최정희, 김동리, 조연현, 정비석 등과 교류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정릉 입구에 있는 재건주택 85호에 거주하였다.

정릉의 산속은 새소리 없이도 푸르다. 물소리만이
그저 솨아솨 골짜기마다 들릴 뿐인데 산은 푸르렀다.
새소리를 무시하고도 정기만으로 푸르른 그 기개만은
장하다 아니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만한 녹음이라면
꾀꼬리소리 한마디 들을 수 없음이 무색하구나.
– 계용묵, 「정릉 일일一日」 –

14 김광섭 怡山 金珖燮

1905~1977 | 함북 경성 출생 | 성북동

시인, 언론인, 번역가이다.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교사를 하며 신문, 잡지에 시와 평론을 발표했다. '극예술연구회'에서 극작가 서항석, 소설가 모윤숙, 시인 노천명 등과 교류하였다. 첫 시집 『동경』을 내고 활동하던 중 학생들에게 민족사상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체포 되어 3년 8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해방 후 민중일보 편집국장, 세계일보 사장, 경희대 교수 등을 지냈다. 문학단체의 임원직과 미군정청 공보국장, 대통령 초대 공보비서관 등 관직에 있으며 선후배 문인들을 여러 모로 도왔다.
1961년 성북동 168-34번지에 땅을 마련해 지은 2층 단독주택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하였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기간 병석에 있게 된다. 병마와 싸우며 작품세계의 변화를 보여 관념적인 시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일상어로 표현한 시를 쓴다.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는 성북동 집에서 착상하여 1969년 발표한 작품이다. 5년 여 동안 살던 성북동 집은 1990년대 말에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어 사라졌다.

성북동 집에서 외손자와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15 최정희 淡人 崔貞熙

1906~1990 | 함남 성진 출생 | 정릉동

소설가이다. 1931년 잡지《삼천리》의 기자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1936년 시인 이은상의 소개를 받아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뒤 쓴「흉가」이후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는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문제와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작품을 썼다. 한국전쟁 때 대구로 피난하여 마해송, 조지훈, 박목월 등이 소속 된 공군종군작가단에 들어갔다. 서울로 돌아온 뒤 노천명, 모윤숙 등과 1세대 여류작가로 문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박종화는 '담인'이라는 호를 지어줬고, 김동리, 백철, 박연희, 조연현, 김환기와 김향안 부부 등 문화예술인들과 교류의 폭을 넓혔다.
1970년대 서교동에서 정릉4동 산장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한국전쟁 이후 생긴 아파트였다. 이곳에서 오정희, 이제하, 딸 김채원 등 '정릉그룹'이라고 불린 소설가 모임을 열고 책을 펴냈다.

정릉동 집 서재에서 최정희

16

윤오영

痴翁 尹五榮

1907~1976
서울 출생
동선동

수필가, 교육자이다. 《현대문학》에 수필 「측상락厠上樂」을 발표하면서 늦은 나이에 수필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방망이 깎던 노인」, 「양잠설」, 「곶감과 수필」 등 우리나라 수필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을만한 명작을 남겼다. 문학의 한 장르인 수필의 개념과 성격, 문장론, 표현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수필문학입문』을 발간하고, 「구지가」, 「연암문장」 등 고전을 연구한 논문을 썼다. 말년을 보낸 동선동2가 135번지에서 작고하였다.

그는 정으로 사는 사람이다. 서리같이 찬 그의 이성이 정에 용해되면서 살아왔다. 그의 수필의 소재는 다양하다. 평범한 생활에서 얻는 신기한 발견, 특히 독서에서 오는 풍부하고 심각한 체험이 그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피천득, 「치옹痴翁」 –

17

김유정

金裕貞

1908~1937
강원도 춘천 출생
정릉동

소설가이다.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인지와 문예지, 신문에 「두꺼비」, 「봄봄」 등 여러 편을 발표하고, 1935년 「소낙비」와 「노다지」가 각각 조선일보와 중외일보에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면서 형제들의 집과 셋방을 전전하며 지내다 만성적인 늑막염과 치질,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1936년 정릉 근처 암자에서 요양하였다. 휴양 중에도 「산골 나그네」, 「토끼」, 「슬픈 이야기」, 「동백꽃」, 「야앵」, 「따라지」 등 3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병든 몸으로 다시 효제동 셋방과 매형 집을 전전하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18

오영수

蘭溪 吳永壽

1909~1979
경남 울산 출생
돈암동

소설가이다. 1949년 「남이와 엿장수」(후에 「고무신」으로 개작)를 김동리의 추천으로 《신천지》에 싣고, 이듬해 「머루」가 《서울신문》에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주가 많았던 그는 해방 이후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953년 《문예》에 발표한 「두 노인」, 「갯마을」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문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1954년 《현대문학》에서 초대 편집장을 맡아 10여 년 동안 문학잡지 발간을 하였다. 이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돈암동 250번지에 집을 마련하고, 단편소설 「여우」, 「명암」 등 여러 편을 발표하였다. 건강이 나빠지며 1963년 도봉구 우이동으로 이사하였다가 1977년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19

박태원

仇甫 朴泰遠

1909~1986
서울 출생
돈암동, 성북동

소설가이다. 1926년 《조선문단》에 발표한 시 「누님」과 1930년 《신생新生》에 발표한 「수염」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구인회'에 참여 하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여인성장」 등을 발표,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이름이 났다. 근대시기 서울의 모습과 서울 사람들의 생활, 서울말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 꼽혔다. 이광수에게 문학을 배웠고, 시인 이상, 이태준과 절친하였다. 돈암동 487-22번지에 땅을 마련하고 직접 설계한 집을 지어 살다가 『약산과 의열단』의 인세 대신 성북동 230번지 집을 받아 이사하였다. 만해 한용운이 살던 '심우장'으로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있던 초가집이었다. 2013년 조성된 '만해의 산책공원' 부근이 옛 집터이다. 1950년 월북하여 북한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20 김내성

雅人 金來成

1909~1957
평남 대동 출생
성북동, 돈암동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유학 중에 일본 탐정소설 전문지에 투고한 작품이 당선되며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7년《조선일보》에 연재한 탐정소설「가상범인」은 우리나라 문단에 처음 선보인 추리소설이다.「백가면」,「마인魔人」을 잇달아 발표하고, 외국 탐정소설 번안, 라디오 방송소설과 대중소설도 집필하였다. 1946년 최초의 어린이 연속 방송극인「똘똘이의 모험」도 큰 인기를 끌었다.「청춘극장」,「애인」,「마인」등은 영화와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소설가 박계주, 평론가 백철들과 교유하였으나, 문단이나 사회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 1936년 가회동, 명륜동, 돈암동 셋방을 전전하던 생활에서 벗어나『태풍』의 인세로 성북동 집을 장만했다. 1948년에는 돈암동 69-10번지에 다시 집을 마련하였다.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그는 건강악화로 1957년 연재하던『실낙원의 별』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세상을 뜬다.

"산으로 가요."
"그렇지요. 깊숙한 산골짜기 같은 데가 좋겠지요."
이리하여 차는 창경원 앞을 그대로 지나 동소문 고개를 넘었다.
"성북동으로 들어가!"
삼선교에서 차는 왼편으로 꺾어져 성북동 막바지를 향하여
개천가를 곧장 기어 올라 갔다.
– 〈애인〉(250화), 경향신문, 1955.6.15 –

21 안수길

南石 安壽吉

1911~1977
함남 함흥 출생
종암동

소설가이다. 1935년《조선문단》에 단편소설「적십자병원장」과 콩트「붉은 목도리」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염상섭, 송지영들과 만선일보에서 기자로 있으며 장편소설「북향보」를 연재하였다. 만주에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방과 전쟁을 겪는 시대상을 소설에 담아냈다. 대표작인「북간도」는 만주 개척사를 다룬 5부작 대하소설이다. 한국전쟁 때 염상섭, 이무영과 함께 해군 종군작가단에서 복무했고, 박연희, 김수영, 김종삼들과 어울려 지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고, 서라벌예대에서 교수를 하며 문예지《북향》을 발행했다. 빽빽하게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에서 글을 쓰고, 마당에 파초와 오동나무를 키우던 종암동 123-71번지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22 박계주

曙雲 朴啓周

1913~1966
간도 용정 출생
돈암동

소설가이다.《간도일보》신춘문예에서 입선한「적빈」으로 1929년 등단하였다. 기독교 신자로《예수》를 창간하고, 종교논문과 시조 등을 발표하였다. 1938년《매일신보》에 당선된「순애보」는 다음해 6개월 간 신문에 연재되며 화제에 올랐고, 단행본 초판 1천부 매진, 70여 판 인쇄라는 기록을 세웠다.「죄 없는 죄인」,「순애보」,「별아 내 가슴에」등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940년대 돈암동 산72-1번지로 이사해 살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납북, 탈출에 성공해 다시 돈암동 98-1번지에 집을 구했다. 같은 성북구에 살던 김내성과 방인근, 문단 활동을 같이 하던 김광섭, 안수길, 조병화들과 교류하였다. 1958년 이사 간 정릉동 685-123호 집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투병생활을 하였다. 돈암동 미아리고개로 이사한 뒤 세상을 떠났다.

밀다원 시대

한국전쟁 때 부산은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광복동에 있던 다방은 문화예술인들의 안식처이자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였다. 김동리, 김광섭, 모윤숙, 김내성, 이헌구, 유치진, 황순원 등 문인 대다수가 다방에 모여 시국과 문학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밀다원 시대」는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2층에 있던 '밀다원 다방'을 배경으로 김동리가 쓴 단편소설로 조연현과 김말봉, 이봉구를 빗댄 인물이 등장하여 생생한 부산 피난 시절을 그리고 있다.

서라벌예술대학

용산구 후암동에서 1956년 돈암동 산3-1 번지로 이전한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대학이다. 문예창작학과가 전체 정원의 1/3을 차지하였다. 김동리, 서정주, 박목월, 김수영, 염상섭, 유치진, 안수길, 김현승 등 당대 문단의 중진들이 교수진이었으며, 김주영, 천승세, 이문구, 김원일, 조세희, 윤후명, 오정희, 이근배, 박경용 등 소설, 시, 극작가 등이 배출되었다. 1972년 중앙대학교에 합병되었다.

23 김동리 金東里

1913~1995 | 경북 경주 출생 | 돈암동

소설가이다. 1934년 시 「백로」가 《조선일보》에 입선하였고, 다음해 소설 「화랑의 후예」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열여섯 살 많은 큰 형인 한학자 김정설의 영향을 받았고, 형이 있는 다솔사와 해인사에 머물며 글을 쓰기도 했다.
1945년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에 작은 한옥을 마련했다. 민족의식을 뚜렷이 내세워 1946년 조지훈, 조연현, 박두진 등과 '조선청년가문학가협회'를 만든 이래 문단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다.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와 문학 관련 협회를 이끌며 박경리를 포함해 수많은 문인들을 문단에 추천하고, 양성하였다. 대표작 「무녀도」는 1936년 《중앙》에 발표한 뒤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78년 장편 「을화」로 다시 냈고, 4년 후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전통과 종교를 다룬 소설 「황토기」, 「등신불」과 자신이 겪은 사회상을 담은 소설 「흥남철수」, 「밀다원시대」 등 수많은 소설과 수필을 남겼다.

삼선교와 돈암교 사이에 놓인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 그러나 언덕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산줄기의 끝이었다.
이 산줄기를 타고, 허연 신작로가 널따랗게
커브를 그리며 돌아간 산지 일대의 구멍들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 김동리, 「혈거부족」 –

24 김광균

雨杜 金光均

1914~1993
개성 출생
성북동

시인이며, 실업가이다.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설야雪夜」로 등단했다. 중학생일 때부터 신문지면에 여러 편의 시를 발표했고, 서정주, 오장환과 《시인부락》, 신석초, 이육사 등과 《자오선》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김기림, 정지용 등과 같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시인으로, 현대적이고 시각적인 감각을 담은 시를 썼다. 시집 『와사등』, 『기항지』 등을 내며 문단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집안 사정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30년 가까이 문단을 떠났다. 1980년대 초부터 다시 창작 작품을 발표하고, 시집 『와우산』, 『추풍귀우』를 냈다. 딸 김은영과 화가 전성우가 혼인하여 간송 전형필과 사돈 관계다. 시인 김기림, 미술사학자 이용희, 최순우, 화가 배렴 등과 교류하였다. 1980년대 성북동에 살았으며, 부암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성북동 집에서 김향안

정릉동 집 서재에서 박연희

25 김향안 金鄕岸

1914~2004 | 서울 출생 | 성북동

수필가로 본명은 변동림이다. 1930년대 중반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4년 화가 김환기와 혼인하였다. 당시로는 드물게 드레스를 입고 신식혼례를 올렸는데, 주례는 고희동, 사회는 시인 정지용과 화가 길진섭이 맡았다. 성북동에 살던 김용준의 집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신혼 생활을 했는데, 김환기의 호 '수화'와 김향안의 '향안'에서 한 글자씩 따서 당호를 '수향산방'이라 하였다. 김환기와 함께 간 프랑스에서 미술사와 미술평론을 공부했고, 1964년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김환기를 내조하였다. 1978년에는 환기재단을 설립하고, 1992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을 설립하였다. 저서로 『카페와 참종이』,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등이 있다.

그때만 해도 성북동은 맑은 개울이
흐르는 산협. 드문드문 인가 있는
별장지대였다. 아침에 파삭파삭한
모시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계곡을 걸어 들어오려면 그냥
옷이 후줄근 젖어버렸다. 집안에
들어 앉으면 깊은 산중에 묻힌 듯
적요寂寥했다.
– 김향안, 「산에 사는 맛」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릉 집으로 이사 온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다. 누구의 뜻 인지도
모르고 사서 들었다. … 시골 냄새가 풍기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남향 받이여서 아늑했다.
… 뒤꼍은 아예 담도 없었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밤나무 숲이 우겨져 있었다.
– 박연희, 「아이들과 과일나무」 –

26 박연희 霞村 朴淵禧

1918~2008 | 함남 함흥 출생 | 정릉동

소설가이다.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투영한 작품과 역사의식을 고취한 장편역사소설을 발표하였다. 해방 후 월남하여 잡지《자유세계》창간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필화 사건을 겪으며 붓을 꺾고 산골에서 생활하던 박연희는 김환기의 소개로 '정음사'의 창간자를 알게 되며 첫 소설집『방황』(1967)을 발간한다. 1960년에는 시인 조영암의 소개로 정릉동 289번지로 이사하였다. ㄱ자 구조의 작은 초가집에 푸성귀를 심어 먹을 밭이 딸려 있는 집이었다. 박계주, 김수영, 황염수, 구상 등과 어울렸고, 낚시를 좋아해 오영수, 조병화 등과 낚시 여행을 다녔다. 20년 넘게 살며 정릉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하촌일가』를 집필한다.

27 전광용 白史 全光鏞

1918~1988
함남 북청 출생
안암동, 성북동, 동소문동

소설가이자 국문학자이다. 1939년 동화「별나라 공주와 토끼」가《동아일보》에, 1955년「흑산도」가《조선일보》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정한숙, 정한모와 '주막酒幕' 동인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였다. 대표작『꺼삐딴 리』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혼란스러운 시류에 편승한 주인공을 통해 시대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신소설 연구와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에 힘썼고, 문단과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스물여덟 살에 서울로 내려와 안암동5가 104-80번지에 거처를 정하고, 피난 후 1960년대 초 성북동 성곽 아래 쪽 주택단지에 집을 마련했다. 몇 년 뒤 동소문동1가 140-69번지로 이사해 아래 윗집을 사 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박화성, 모윤숙, 김광섭, 김남조 등 해방 전후 문단 작가들과 교류하였다.

28 조영암 趙靈巖

1918~?
강원도 회양 출생
정릉동

승려이며 시인이다. 1938년《조선일보》에「파초」를 발표하며 처음 문단에 나왔다. 초기에는 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은 시를 썼으나,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작품과 전쟁시, 정치적인 색깔을 내는 작품을 발표했다. 조선시대 설화집인『고금소총』과 선사들의 시 1만 수를 번역한『선시총서』를 내기도 했다. 조지훈, 박계주, 오상순, 이중섭, 중광스님 등과 교류하였고, 김내성, 김동리, 박계주, 염상섭, 이광수 등 작가 열 한 명의 전기를 모아『한국대표작가전』을 냈다.

29 조연현 石齋 趙演鉉

1920~1981
경남 함안 출생
정릉동

문학평론가이자 출판인이다. 서울에 올라와 중동중학교에 편입하여 김광섭 시인을 담임으로 만난다. 일제강점기에 한글 동인지《아芽》와《시림詩林》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문학의 길을 택한다. 해방 후《예술부락》, 1949년《문예》, 이어 1955년에는 순수문예지인《현대문학》의 주간을 맡는다.《예술부락》주간을 하며 유치환, 박용구,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과 교류하며 1946년 '청년문학가협회'를 만들어 문단 활동을 함께 했다. 서울 생활을 한 지 20여 년만인 1972년 정릉동에 새로 주택지가 조성 될 때 이층 양옥을 마련해 이사하였다. 문단의 주요 단체의 중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문인들과 두루 어울렸다. 조연현이 세상을 뜬 뒤 1982년부터 한국문인협회에서 '조연현문학상'을 제정하여 후배 문인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문학

1955년 1월 창간된 《현대문학》은 발간과 함께 대표적인 문학잡지로 자리 잡으며 우리나라 최장수 문예지가 되었다. 주간을 맡은 조연현은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뜻으로 화가들에게 그림을 받아 표지를 꾸몄다. 편집장은 오영수, 편집사원은 시인 김구용, 박재삼이었다.

조지훈과 한용운

조지훈은 아버지인 민족운동가 조헌영과 집안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이 뚜렷했다. 한용운의 책을 읽으며 자라 열일곱 살에 심우장에서 한용운을 만났고, 후에 「한용운론韓龍雲論」을 집필하였다.

내가 선생을 처음 뵈온 것은 정축년(1937) 여름인가 한다. 그 때 나는 성균관 뒤에 살았기 때문에 고개 하나만 넘으면 성북동의 심우장-선생의 우거寓居로 찾아 뵐 수가 있었다. 어느날 가엄(家嚴;아버지 조헌영)을 따라 심우장으로 선생께 뵈이러 가는 도중에서 선생을 처음 뵙게 되었다. 먹물 드린 고이 적삼에 헬메트를 쓰시고 무슨 보따리를 들고 고개를 넘어 오시던 그 고기古奇 청수淸秀한 모습은 매우 인상이 깊다.
– 조지훈, 「한용운 선생」 –

30

조지훈

趙芝薰

1920~1968
경북 영양 출생
성북동

시인이자 학자이다. 1939년 《문장》에 시 「고풍의상」과 「승무」, 1940년에 「봉황수」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민족정서와 불교적 색채를 담은 작품을 남겼다.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며 민족문화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아 『한국문화사대계』를 기획하였다. 해방 후 성북동 60-44번지에 ㄷ자형 한옥을 마련하고 '방우산장放牛山莊'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근처에 살던 화가 김기창, 김환기, 작곡가 윤이상들과 오가며 지냈다. 이 집에서 박목월, 박두진과 모여 의견을 나누고 『청록집』을 냈고, 책의 장정은 성북동에 살던 근원 김용준이 맡았다. 정지용이 《문장》에 추천하면서 등단한 세 사람은 서정성 있는 시 세계를 펼쳐 '청록파'라고 불렸다. 1960년대 사회 인식과 저항 의식을 담은 시를 발표하였다.

'방우산장放牛山莊'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집 이름이다. 집이란 물건은 고루거각高樓巨閣이든 용슬소옥容膝小屋이든지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떠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매 집 이름도 특칭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고 보니 육척 수신 장구를 담아서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 조지훈, 「방우산장기」 –

31 김종삼
金宗三

1921~1984
황해도 은율 출생
성북동, 정릉동

「원정」, 「돌각담」 등을 발표하며 등단한 시인이다. 작곡가를 꿈꿨으나 집안의 반대로 음악공부를 하지 못하고, 시인이 되었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고전음악 감상실에 다니며 음악 듣기를 즐겼다. 1955년 국방부 정훈국 방송과 음악을 담당하였고, 1963년에는 동아방송에 입사해 13년간 활동한다. 전봉건, 김광림과 함께 낸 연대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1960~80년대에 걸쳐 낸 시집 『십이음계』, 『시인학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가 있다. 초기 시에서 음악의 세계를 추구하고 순수한 평화의 삶을 동경하였고, 후기로 오며 현실의 고통과 죽음, 연민을 담은 시를 썼다. 월급이 들어오면 술을 마시고 후배들에게 용돈을 주고 말아 돈을 모을 새가 없어 집은 늘 이사를 다녀야했다. 직장 은퇴 후 알콜 중독과 건강 악화로 말년을 힘겹게 보냈다. 성북구 성북동, 종로구 옥인동 등 셋집을 전전하다가 정릉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리랑고개 밑 5번 버스를 타러 가고 있다.
나도향
김소월
나운규를 떠올리면서
5번 버스로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그때엔
황토먼지의 아리랑고개를 넘어간
5번 버스로 오늘도
– 김종삼, 「무제」 –

32 김수영
金洙暎

1921~1968
서울
돈암동, 성북동

1960년대 현실 체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펼친 저항시인이다. 일본의 연극연구소에서 연출수업을 받으며 습작시를 쓰기 시작했다. 강제징용을 피해 서울, 만주 길림성에서 연극에 참여하며 각본 · 연출 · 주연을 맡는다. 1947년 조연현이 주간으로 있는 《예술부락》에 〈묘정의 노래〉로 등단한다. 1950년 돈암동에서 살림을 시작하나 곧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북으로 끌려가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 1954년 성북동에 집을 구하고, 박연희, 안수길, 고은, 안동림 등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4·19와 5·16을 겪은 이후 현실 비판의 직설적인 시와 「지식인의 사회참여」라는 글을 발표하고, '시여 침을 뱉어라'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시론을 펼쳤다.

33 김구용
金丘庸

1922~2001
경북 상주 출생
성북동, 동선동

시인이자 한학자이다. 1949년 《신천지》에 「산중야」, 「백탑송」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고, 1956년에 현대문학사의 제1회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해방 전 동학사에 머물렀던 경험으로 불교적인 시를 남겼고, 산문 형태의 긴 시가 특징이다. 추사 김정희를 흠모하여 추사의 글씨와 학문에 일가견이 있었다. '백화'라는 추사 글씨 초본을 얻은 뒤 당호를 '백화시실'이라 하였다. 문단에서 '구용체丘庸體'라고 말할 만큼 글씨가 개성이 있어 문인들이 시집 제자題字나 당호 글씨를 얻어갔다. 1960년대 초 성북동을 거쳐 동선동2가 142번지에 있는 ㄷ자 구조의 한옥에서 살았다. 서재에는 '보연재寶蓮齋'라고 쓴 편액이 걸려있었다. 20여년 동안 대학에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전과 한문에도 능해 『삼국지』, 『수호전』 등을 번역하였다.

34 한운사
韓雲史

1922~2009
충북 괴산 출생
성북동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다. 1948년 「날아간 새」를 시작으로 방송극과 소설을 발표하였다. 「빨간 마후라」가 1964년 영화화 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도 한운사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에는 〈현해탄은 알고 있다〉, 〈하얀 까마귀〉 등이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전쟁에 징집되고, 한국전쟁 때 포로수용소에 수감, 반공법 연루, 필화 사건 등 직접 겪은 이후 우리 근대사의 아픔을 작품에 그대로 담아냈다. 한남동 적산가옥에 살다가 1960년대 성북동 111-17번지, 언덕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이웃으로 정한숙, 정한모, 전광용이 있었다. TV와 라디오 드라마 대본 수십 편을 집필했고, 대중가요 〈잘살아 보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빨간 마후라〉 등의 가사를 지었다.

35 정한숙
一悟 鄭漢淑

1922~1997
평북 영변 출생
성북동, 삼선동

소설가, 국문학자이다. 해방 후 남한으로 내려와 국문학과에 입학, 1948년 3월 《예술조선》에 단편 「고가古家」를 발표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1955년 신춘문예에 소설 「전황당인보기田黃堂印譜記」와 희곡 「혼항昏巷」 두 편이 당선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고, 문학잡지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였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연구하며 『소설문장론』, 『현대한국작가론』, 『현대한국소설론』 등을 집필하였다. 1960년대 초 '주막' 동인인 전광용, 정한모와 성북동에 이웃하여 살았고, 삼선동으로 이사하여 성악가 이관옥, 첼리스트 전봉초와 이웃으로 지낸다.

36 정한모
鄭漢模

1923~1991
충남 부여 출생
성북동

시인이며 학자이다.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멸입滅入」이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시탑'과 '주막'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자연과 일상에서 얻는 시상詩想을 담은 시집 『카오스의 사족』, 『아가의 방』, 『새벽』 등을 발표하였다. 『현대작가연구』, 『문학개설』, 『현대시론』 등 연구서를 내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쳤으며, 한국시인협회, 국어국문학회, 한국비교문학회 회장을 지냈다. 1988년 문화공보부 장관을 할 때 납 · 월북 문인 작품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 문단 진출은 늦었지만 호걸형인 성격과 추진력으로 문단 사람들과 두루 친분을 쌓았다. 1960년대 성북동에 전광용, 정한숙과 이웃해 산 이후 어머니와 손녀까지 4대가 함께 30여 년을 성북동에 살았다.

37 차범석
車凡錫

1924~2006
전남 목포 출생
삼선동, 정릉동

극작가, 연극 연출가이다. 대학시절부터 이미 연극 극본 집필과 연출 활동을 하던 차범석은 1955년 《조선일보》에 신춘문예 「밀주」, 이듬해 「귀향」이 당선되면서 정식 등단하였다. 대학극회 동인들과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제 극단인 '제작극회'를 조직한다. 이후 극단 '산하'를 만들고 대표작 〈산불〉을 전국으로 다니며 공연한다.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꿈하늘〉, 〈장미의 성〉 등 작품을 만들었다. 소극장 운동을 펼쳤고, 『한국소극장연극사』를 집필하였다. 서울에서 집을 옮겨 다니며 지내다 삼선동 21-1번지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팔고 정릉4동 266-10번지로 이사한다. 가족처럼 여기던 극단 사람들과 화가 이만익, 무용가 이매방 등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오갔다.

주막 酒幕

1948년 대학생이던 전광용, 정한모, 정한숙, 전영경이 모여 만든 문학 친목 모임이다. 초기 동인 중 한국전쟁 때 행방을 찾지 못한 김봉혁과 사망한 남상규를 제외한 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모임을 이어나갔다. 동인지同人誌를 만들어 작품을 발표하는 다른 동인과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 각자 써 온 작품을 같이 읽고 합평회를 하였다. 1955년 같은 해에 모두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모임 이름에 '술 주酒'가 들어갈 정도로 술을 즐겨,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모여 오전 일찍 합평회를 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실 정도였다. 각자 정종 한 되, 양주 반 병쯤은 마셔야 술을 마셨다고 할 만큼 술을 즐겼다. 전광용, 정한모, 정한숙은 1960년대 초 성북동 이웃으로 가까이 살아 삼선교와 종로에 있는 술집에서 자주 술자리 만들어 동료 문인들과 술을 마셨다.

38 박경리 朴景利

1926~2008 | 경남 통영 출생 | 돈암동, 정릉동

대하소설『토지』를 쓴 소설가이다.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현대문학》에「계산」을 발표하고, 다음해「흑흑백백」을 게재하며 문단에 등단하였다. 필명 '경리'도 김동리가 지어준 것이다. 장편소설「표류도」로 '내성문학상'을 타고, 1960년대「노을진 들녘」,「파시」,「김약국의 딸들」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문단에 자리를 잡는다.
1950년대 후반, 돈암동 셋방에서 정릉동 768-2번지, 정릉 골짜기 한적한 곳으로 집을 옮겨갔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대장정을 담은『토지』는 정릉동 집에 살던 1969년부터 집필하였다. 1980년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여 1994년 8월 15일 탈고한『토지』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작가들의 창작과 교류를 위한 '토지문화관'을 짓고, 대학에서 후학들과 만나며 말년을 보냈다.

정릉동 집 서재에서 박경리

정릉 숲 속에
벚나무가 있었다
아이들이 나무를
장대로 두들기고 있었다
손주를 업고
메뚜기처럼 뛰어갔다
…… 후략 ……

– 박경리, 「정릉의 벚나무」 –

내 처녀적의 마지막 집도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에 있었다. 내가 시집갈 무렵 친정집도 딴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서 다시는 가볼 기회가 없었다. … 그제서야 내가 천주교회와 신선탕 중간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의 옛집은 바로 신선탕 뒷골목에 있었고, 그 남자네 집은 천주교단 뒤쪽에 있었다.

– 박완서, 「그 남자네 집」 –

39 신동엽
申東曄

1930~1969
충남 부여 출생
돈암동, 동선동

시인이다.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석림石林이라는 필명으로 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로 문단에 진출한다. 대학 졸업 후 돈암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헌책방을 차려 생계를 꾸린다. 이때 만난 아내 인병선과 1957년 혼인하지만, 건강 악화로 낙향하였다. 1960년 서울로 올라와 다시 돈암동에 집을 마련한다. 2년 후 동선동 5가 45번지에 작은 한옥으로 이사한다.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와 장편 서사시 「금강」을 발표한다. 4·19를 경험한 이후 사회 참여의식과 민중의식을 강한 어조로 작품에 담고 동학과 3·1운동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다. 그러나 작품 활동을 한 지 십 년도 되지 않아 동선동 집에서 마흔 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뜬다.

40 박완서
朴婉緖

1931~2011
개성 출생
돈암동

소설가이다. 1970년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마흔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등단하였다. 당선작 「나목」은 화가 박수근이 실제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돈암동으로 이사해 몇 차례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전쟁 중에 오빠를 잃고, 어머니와 올케, 조카들과 지내며 미군부대에 일자리를 얻어 생활비를 벌었다. 한국전쟁의 경험과 일상을 바라보는 현실적이고도 섬세한 시선을 작품에 담아냈다. 돈암동 시절의 경험과 추억은 「나목」, 「그 남자네 집」, 자전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속에 담겼다. 1953년 혼인을 하며 분가해 돈암동을 떠났다.

41 이호철

見山 李浩哲

1932~
함남 원산 출생
삼선동

소설가이다. 황순원의 추천으로 《문학과 예술》에 1955년 「탈향」, 이듬해 「나상」을 발표하며 문단 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인민군, 국군 포로, 미군부대 경비원 등을 거치면서도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 후 사회의 모습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판문점」, 「남녘사람 북녘사람」, 「서울은 만원이다」 등 작품을 발표한다. 김동리, 최정희, 서정주, 서기원 등 1950년대 문단의 생생한 모습을 『문단골 사람들』로 기록하기도 했다. 분단 문제와 민주화 운동,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글과 행동으로 참여하였다. 1956년 삼선교 하숙집에서 소설가 오상원과 같이 지내다가 황순원의 주선으로 출판사에 입사하며 삼선교를 떠났다.

42 안동림

愚堂 安東林

1932~2014
평남 평원 출생
동소문동

음악평론가이자 소설가, 번역가이다. 영문학을 전공하여 1960년대 펄 벅, 노먼 메일러 등 외국 작가의 작품을 번역해서 발간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서양고전음악을 감상하는 취미가 있어 음반을 수집하고, 명동과 종로에 있던 음악감상실에 다니며 음악을 들었다. 음악잡지 《레코드 음악》에 음반을 듣고 난 감상과 평가를 연재하였고, 이를 모아 1988년 『이 한 장의 명반 클래식』을 냈다.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서양 고전음악 입문서로 불릴 만큼 30년 동안 꾸준히 읽힌 책이다. 『안동림의 불멸의 지휘자』, 『내 마음의 아리아』 등 음악 관련 책을 꾸준히 집필하였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한편 독학으로 한학을 공부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장자』를 완역하고, 『벽암록』을 번역하였다. 동소문동 자택에서 말년을 보냈다.

43 고은

高銀

1933~
전북 군산 출생
정릉동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1958년 『현대시』에 시 「폐결핵」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출가하여 10여 년을 승려로 지냈고, 문단 생활을 하면서 환속하였다. 역사 인식과 사회비판 의식을 작품에 내세웠고, 민족과 민중의 삶을 아울렀다. 1986년부터 쓴 연작시 「만인보萬人譜」는 평범한 사람부터 역사적 인물까지 작품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으로 2010년까지 30권으로 출판되었다. 1990년부터 6년 간 191회에 걸쳐 자전소설 「나의 산하 나의 삶」을 일간지에 연재하면서 1950~1970년대 문단과 문화예술인들의 삶과 교류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설 『화엄경』, 『김삿갓』, 시인 이상과 한용운, 화가 이중섭 평전, 산문과 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저서가 있으며,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를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44 이어령

李御寧

1933~
충남 아산 출생
성북동, 삼선동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이다. 1956년 《한국일보》에 실린 평론 「우상의 파괴」로 일약 문단에 존재감을 알렸다. 스물여섯 살에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발탁되었고, 주요 일간지의 대표 필진으로 자리 잡았다. 1963년 신문에 연재한 에세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는 우리 문화론을 펼쳤고, 1982년 발간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다뤘다. 대학 졸업 후 처음 성북고등학교에 취직하여 학교 근처에 셋방을 얻어 살았다. 다시 삼선동으로 셋방을 구해 이사하였다. 경기고등학교 교사가 되며 성북구를 떠났으나 십여 년 뒤 다시 성북동에 집을 사서 이사를 온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 · 폐회식 연출, 초대 문화부 장관, 새천년준비위 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 영인문학관을 열고,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며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45

신경림

申庚林

1936~
충북 충주 출생
정릉동

시인, 평론가이다.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가 이한직의 추천으로 실리며 문단에 나왔다. 10여 년간 농촌과 장터를 떠돌며 경험한 것을 시에 담았다. 첫 시집 『농무』는 1960~70년대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삶을 그린 시집이었다. 1970년대부터 전국의 민요를 수집하며 만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새재』, 『민요기행』으로 엮었다. 시대의 탄압에 맞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항하며 만난 민중과 노동자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랑노래』에 담겼다.
1978년 처음 집을 마련하고 길음동에 살다가 4년 뒤, 정릉동 동방주택으로 이사하였다. 30년 가까이 산 단층 양옥에서 『달넘세』, 『목계장터』, 『길』 등 시집을 발표하고, 기행집 『강 따라 아리랑 따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중 략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미술

한국화
46 장승업 ~ 57 이규선

서양화
58 윤중식 ~ 69 오윤

조각
70 김종영 ~ 73 최만린

서예
74 유치웅 ~ 76 정환섭

공예
77 강창규

건축
78 김종업

46 장승업 吾園 張承業

1843~1897 | 황해도 추정 | 성북동

김홍도, 안견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꼽힌다. 호 오원吾園은 단원檀園 김홍도와 혜원蕙園 신윤복처럼 '나도[吾] 화원이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지었다. 그림 실력이 소문이 나 궁궐에까지 들어가 어명을 받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궁중화원이 되지 않고 그림 기법이나 유파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을 하였다. 그의 생애는 근원 김용준을 통해 일반에 알려졌다. 자신의 스승이자 장승업의 제자인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을 통해 들은 일화를 『근원수필』의 「오원일사」에 남긴다. 성북파출소(현재 성북1동 치안센터) 뒤쪽에는 장승업이 말년에 잠시 오가며 머물던 초가집이 있었다.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과 문인화가 김용진이 찾아와 장승업과 어울렸다고 전한다.

47 변관식 小亭 卞寬植

1899~1976 | 황해도 옹진 출생 | 돈암동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전통을 계승하면서 '소정양식'을 완성하였다. 조선의 마지막 화원인 조석진의 외손자로 서화미술원에서 그림을 배웠다. 이상범, 노수현 등과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화 동인회인 '동연사'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이후 금강산을 유랑하고 말년까지 오대산, 설악산 등지로 다니며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1953년에는 정부의 위탁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대관식에 〈외금강 옥류천〉을 제작하여 보냈다. 1954년 돈암동 한옥에 자리를 잡고 당호를 '돈암산방'이라 짓는다. ㄷ자형의 한옥에 화실을 두고 이곳에서 소정양식을 완성한다. 말년에는 정릉골짜기에 있는 대성사에 머물며 그림을 그려 1975년 회고전을 개최하고, 이듬해 돈암동 집에서 생을 마감한다.

48 장우성 月田 張遇聖

1912~2005 | 충북 충주 | 삼선동

한국 전통 문인화의 맥을 잇는 화가이다. 1936년 김기창, 장덕 등과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연구단체인 '후소회後素會'를 발족시켰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설립되며 동양화 교수를 맡아 박노수, 박세원 등 해방 후 1세대 작가를 양성하였다. 이순신, 김유신, 권율, 강감찬 등 우리나라에서 위인 초상화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꼽힌다. 해방 이후 삼선교 언덕배기집에서 셋방을 살다가 서울대 관사에서 생활하였다. 1963년부터는 미국에서 동양예술학교를 설립하고 한국화를 알린다. 1966년 귀국하여 삼선동 4가 45번지에 ㅁ자 구조의 단층집을 마련하였다. 지역개발로 1971년 삼선동을 떠났고, 1990년에는 팔판동에 월전미술관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왼쪽 변관식
오른쪽 장우성

49

김기창

雲甫 金基昶

1913~2001
서울 출생
성북동

'바보산수'라 불리는 독자적인 화풍을 선보인 화가이다. 일곱 살 때 병으로 청각을 잃었다. 이당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웠고, 서양의 원근감과 일본 화법을 두루 받아들였다. 1931년 조선예술전람회를 통해 화단에 이름을 알렸다. 해방 후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며 민화와 민속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한다. 한국전쟁 후 성북동 55-1번지에 자리를 잡고 아내 박래현과 공동 전시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일상적인 풍경에서 모티브를 찾아 화폭에 담았던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에는 순수추상 작품을 선보였다. 박래현이 1976년 세상을 떠난 뒤 바보처럼 순수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낀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바보산수에 담는다. 다음해 성북동 집을 고쳐 '운향미술관'(후에 운우미술관)을 개관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후원회와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1984년에는 어머니의 고향인 충북 청원에 한옥으로 '운보의 집'을 짓고 내려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친구마다 정원이 좋다 한다. …
크고 작은 종류의 나무들이 좁은 마당에 가득이 들어차
있어 여름이 되면 푸른 향기가 시원한 촉감과 아울러
코 속에 스며드는 곳이기도 하다. 성북동 꼭대기라
교통이 불편하지만 오륙년 지내오면서도 궁둥이를
툭툭 털고 좀 드나들기 수월한 곳으로 떠나가지 못하는
것도 상록수 우거진 우리 집 정원의 탓인지도 모른다.
– 김기창, 「등나무 그늘진 곳에」 –

– 김기창 –

50 박세원

心耕 朴世元

1922~1999
평남 개천 출생
정릉동

전통 산수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산수화의 새로운 표현방법을 모색한 화가이다. 서울대 미술대학교에서 근대화단의 발판을 마련한 심산心山 노수현을 사사, 화맥을 계승하였다. 노수현은 자신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심경心耕이란 호를 주었다.
중국의 남종화와 북종화를 절충한 양식의 산수화를 그렸다. 1970년에는 장발을 중심으로 한 서울가톨릭미술가회가 창립되며 성聖미술 연구발표 활동에 참여한다. 로마 교황청에 〈설악기봉〉, 미국 백악관에 〈만장대 대승폭포〉가 소장되어 있다. 1954년부터 30여 년간 모교에서 교수를 지내며 미술행정가로 해방 이후 화단의 중추 역할을 한 그는 정릉2동 206-31번지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다.

51 서세옥

山丁 徐世鈺

1929~
경북 대구 출생
성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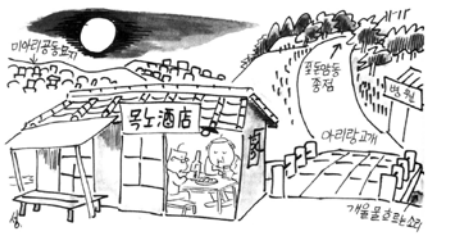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이다. 1950년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제1회로 졸업한 이후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1960년 '묵림회墨林會'를 창립, 8회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통수묵 기법을 현대회화에 도입해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1973년에는 소나무 숲이었던 성북동 언덕에 창덕궁 연경당을 본 뜬 열네 칸 사랑채를 지었다. 뒤편에는 화실을 따로 두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서예 필법으로 그린 〈인간시리즈〉, 〈군상〉, 〈춤추는 사람들〉 등 작품을 발표했다. 2010년 성북구에서 설립한 성북구립미술관의 명예관장으로 위촉되었다.

52 김성환

金星煥

1932~
개성 출생
정릉동

만화 '고바우 영감'을 그린 화가이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에 4컷 만화 '멍텅구리'를 연재하고, 1949년 김용환이 만든 주간週刊 〈만화뉴스〉의 전속작가로 만화를 그린다. 총 1만 4,139회를 연재한 대기록을 갖고 있는 '고바우 영감'은 1950년 주간 〈만화신보〉에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초기에는 콧수염에 중절모를 쓴 모습이었고, 지면을 옮기며 〈신태양〉, 〈희망〉 등에도 실렸다. 문화일보에서 2000년 9월 연재를 끝맺었다. 2013년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는 최초로 〈고바우 영감〉 원화原畫가 등록문화재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한국전쟁 때 정릉동 집 다락에 석 달 가까이 숨어 지내며 전쟁의 참상을 스케치하고, 인물 캐릭터 2백여 개를 만들었다.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서 국군 홍보 만화를 그리다가 전쟁 후 정릉동 집으로 돌아왔다. 박수근 화백이나 이웃에 살던 박고석 화백과 가깝게 지냈다.



박고석 화백과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모이던 명동 모나리자다방에서 만나 돌아오는 길에 정릉 입구의 오두막 선술집에 들렀던 때를 회상하며 그린 그림이다.

성북장학회

성북구에 살며 활동하던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를 열고 작품 판매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임이다. 1978년에 설립되어 서세옥, 이규호, 최만린 등이 회장으로 활동하며 현재에 이른다. 참여 작가로 서세옥, 송영방, 신영상, 이규선, 임송희(이상 동양화), 권옥연, 윤중식, 황염수, 이규호, 표승현, 조문자(이상 서양화), 최만린(조각), 유치웅,김충현(서예) 등이 있다.

묵림회와 한국화회

해방 이후, 전통 한국화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며 변화를 보인다.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의 박세원, 서세옥, 박노수, 정탁영 등이 만든 '묵림회'에서는 1960년 전통 수묵의 기법을 현대화하고 수묵추상화를 시도한다. 송영방, 임송희, 정탁영, 신영상, 이규선 등은 '한국화회'를 만들고 이때부터 동양화 대신 한국화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한다.
서울대 선후배이자 사제지간인 이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하나 둘 성북동에 자리 잡았다. 그림을 그리고 수석이나 민예품을 모으는 취미를 공유했다. 노석老石 신영상, 이석以石 임송희처럼 자신의 호에 돌 석石 자를 넣어 짓기도 했다. 1978년 발족한 성북장학회 활동과 성북구립미술관 전시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53

신영상

老石 辛永常

1935~
충남 당진 출생
성북동

전통수묵을 현대화 하는 작업을 해 온 화가이다. 서울대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박세원, 장우성, 서세옥을 사사하고 묵림회에 참여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해 · 달 · 별 · 구름과 같이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흐름을 담은 〈조潮〉, 〈문살〉, 〈율律〉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1970년대 성북동에 집을 마련하고 2층에 화실을 두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념으로 목련과 후박나무를 심었다. 35년 동안 서울대 미대 교수로 제자를 길러냈고, 학교를 떠난 이후에는 성북동에서 말년을 보내며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54

송영방

牛玄 宋榮邦

1936~
경기도 화성 출생
성북동

산수화, 인물화, 화조도 뿐만 아니라 불화와 삽화에 이르는 작품 세계를 보이는 화가이다. 서울대 동양화과의 묵림회와 한국화회 결성에 참여한다. 《새벗》, 《새소년》과 같은 아동지와 신문연재소설의 삽화, 법정스님과 시인 신경림 등 문인들의 책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다. 1984년에 첫 개인전을 연 이후 동국대 미술대학에서 교수와 학장을 지냈다. 조지훈의 시를 그림으로 담은 〈승무〉가 잘 알려진 작품이다. 성북동 집은 1960년대 중반 터를 잡고 지은 집으로 돌과 매화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뜻으로 '매석취호梅石醉豪'라는 당호를 붙였다. 젊은 시절부터 모은 수석과 석물이 마당에 소나무와 어우러져 있다.

55 정탁영
白溪 鄭晫永

1937~2012
강원도 횡성 출생
성북동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그림에 담은 화가이다.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묵림회'에서 수묵추상화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 들어 여주의 산자락에 화실을 두고 〈잊혀진 것들〉, 〈영겁속에서〉 시리즈를 발표한다. 20여 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1970년대 성북동으로 이사하였다. 30여 종의 야생화로 마당을 가꾸고, 큰 매화나무에서 매실을 수확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성북동 생활을 즐겼다. 2010년 집과 화실을 경기도 여주로 옮기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났다.

56 임송희
以石 林頌羲

1938~
충북 괴산 출생
성북동

소달구지, 원두막과 같은 시골의 정감을 담은 산수화로 이름을 알린 화가이다. 스승 박세원이 자신의 호 심경心耕에서 따 심정心井 이란 호를 지어주었다. 묵림회와 한국화회에 참여하였고, 3차례에 걸쳐 한국화회 회장을 지냈다.
1978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당호를 '취석헌醉石軒'으로 지었다. 마당에는 젊은 시절 돌을 찾아다니며 얻은 괴석, 석등, 석함石函과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의 큰 바위가 어울려 있다. 1층 화실의 큰 창문으로 마당의 전경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설계하였다. 대학에서 은퇴한 뒤 작업에 매진하며 실경산수, 파묵, 문인화, 추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57 이규선
南溪 李奎鮮

1938~2014
인천 출생
성북동

먹물이 번져나가는 발묵潑墨효과를 이용해 자연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추상화 작업을 한 화가이다. 서울대 미술대학의 동인들이 중심이 된 묵림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동양화의 기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작품초기에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구조를 보였으나, 후기에는 추상수묵화를 그린다. 성북동은 젊은 시절을 보낸 공간이다. 서울대학교 화우들이 모여 있는 성북동에서 서세옥, 송영방, 신영상, 임송희와 함께 이웃하며 산다. 갑작스레 걸린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뒤 한적한 경기도 양주로 거처를 옮긴다. 이후 죽음을 경험하며 얻은 영감으로 마음의 창문이란 〈시창청공〉, 서재의 창문이란 〈서창청공〉 시리즈를 발표했다.

58 윤중식
尹仲植

1913~2012
평남 평양 출생
성북동

자연 풍경을 유화로 담은 화가이다. 숭실중학교에 다니던 1931년 제2회 녹향회綠鄕會 공모전과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면서 화단에 진출하였다. 일본 동경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우고, 1941년에 귀국하여 평북 선천 보성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1943년 평양 체신회관에서 이중섭, 황염수 등과 6인 전을 개최하였다. 한국전쟁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뒤 평생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인 저녁노을, 비둘기, 돛단배, 시골풍경을 작품에 담았다. 1963년 성북동으로 이사하여 마을 풍경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화실에서 〈교회와 비둘기〉, 〈귀로〉 등의 작품을 창작한다. 성북구립미술관에서 100세 기념전을 연 뒤 같은 해 성북동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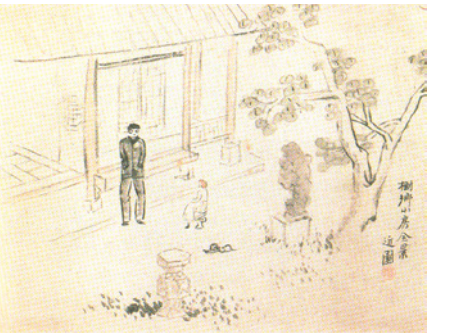
김환기

樹話 金煥基

1913~1974
전남 신안 출생
성북동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일본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1930년대 후반부터 추상미술을 시도하였다. 해방 후에는 산, 강, 달 등 자연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집안 곳곳에 조선 백자를 두고 완상하며 그림에 담았다. 항아리와 달, 여인, 꽃, 새, 사슴 등을 그린 〈여인과 매화와 항아리〉(1956), 〈항아리와 새〉(1957), 〈정원〉(1957), 〈항아리〉(1958) 등이 대표적이다.

1944년 김향안과 혼인 하여 김용준이 살던 '노시산방'을 이어 받아 자신의 호와 아내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 '수향산방樹鄕山房'이라 이름 붙였다. 1948년 종로구 원서동으로 이사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북동으로 돌아와 274-1번지에 집을 마련한다. 새로 구한 성북동 집은 ㅁ자 형의 반듯한 한옥이었다. 성북동에 대한 애정을 담은 수필집 「산방기」를 발표하기도 한다.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1960년에는 신설된 미술대학 학장을 지냈다. 이때 학교와 가까운 마포로 이사한다. 1963년 한국대표로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가한 이후 뉴욕에 정착했다. 뉴욕 시절부터 무수한 점으로 가득찬 점화點畫를 그렸고, 1970년 한국일보 미술대상전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절친한 친구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읽고 영감을 얻어 그의 시 구절을 딴 제목을 붙인 작품이다.



〈수향산방전경〉, 1944
종이에 수묵과 담채, 24×32㎝, 환기미술관 소장

노시산방과 수향산방

수향산방은 안방, 대청, 건넌방과 안방에 붙은 부엌, 아랫방, 광으로 된 ㄱ자 한옥이었다. 바로 옆에 개울이 있고, 후원에는 여러 그루의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다. 집을 물려준 근원 김용준은 자주 수향산방을 찾았다. 김환기가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수화소노인 가부좌상樹話小老人跏趺坐像〉과 키가 큰 김환기와 작고 아담한 김향안이 수향산방 집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린 〈수향산방전경〉을 그려주었다.

60

한묵

韓默

1914~
서울 출생
정릉동

기하학적 추상미술을 개척한 화가이다. 일본 가와바타미술학교에 유학한 이후 1952년 부산 피난 시절 박고석, 황염수와 생사를 같이 하며 가족처럼 지냈고, 이들과 르네상스 다방에서 '기조전其潮展'을 개최하며 화단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로 돌아 온 후 정릉동 근처 하숙집에서 생활하였다. 홍익대학교 교수를 지내던 중 새로운 예술세계를 찾아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갔다. 피카소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하였고, 1969년 아폴로 우주선 달 착륙을 계기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인 요소로 4차원의 공간감을 평면에 구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2013년 프랑스에서 100세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였다.

61

이중섭

大鄕 李仲燮

1916~1956
평남 평원 출생
정릉동

은박지에 그린 그림인 은지화와 〈황소〉로 알려진 화가이다. 오산고등보통학교에서 미국 예일대학 출신 미술교사 임용연에게 그림을 배우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일본 화단에서 추상미술을 하는 화가들의 모임인 '자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활동한다. 한국전쟁 때 부산, 제주도로 피난을 다니며 기조전에 참여하였다. 물자가 부족하던 때 캔버스, 물감을 구하지 못하면 송곳이나 연필로 담뱃갑에 붙어 있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 일본인 아내와 두 아들과 헤어져 지내며 가족의 모습을 은지화 담았다. 영양부족과 신경쇠약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 돈암동에 있던 성베드로병원에 옮겨졌다가 병원을 나와 잠시 근처 정릉동에 살던 한묵의 집에 머문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62

박고석

朴古石

1917~2002
평남 평양 출생
정릉동

'산의 화가'라 불린다. 일본대학 예술학부 유학하여 단체전과 개인전을 연 이후, 1950년대 황염수, 이중섭 등과 기조전, 모던아트협회, '구상전具象展'을 이끌며 순수회화 운동을 펼쳤다. 부산 피난에서 돌아온 후 신설동 초가집에 살다가 1955년 정릉동에 자리 잡고 서라벌예대와 홍익대에 출강하였다. 박경리, 천승세 등 작가들의 신문 연재소설에 삽화를 그리기도 한다. 돈암동 전차 종점 근처에 작업실을 두고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을 다니며 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한다. 1978년 정릉동에서 동소문동으로 이사하고, 1983년에는 처남인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하여 지은 명륜동 집 아틀리에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내설악에서 박고석, 고은, 한묵, 1975

박고석, 한묵, 이중섭, 고은

이중섭과 한묵은 1940년대 강원도 원산에서, 박고석과는 부산 피난 시절에 만났다. 박고석이 살던 판잣집에 이중섭이 머물며 같이 스케치를 다녔고, 박고석, 한묵, 손응성과 함께 〈기조전〉 전시를 하였다.
이중섭과 절친했던 시인 구상의 소개로 박고석을 알게 된 고은은 1959년부터 2년 간 박고석의 집에 머물렀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이중섭은 늘 박고석을 찾아왔고, 정릉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구상과 어울리던 고은도 만났다. 오랜 친구인 한묵도 프랑스로 가기 전 정릉에 머물렀다.

63 황염수
黃廉秀

1917~2008
평남 평양 출생
돈암동

'장미의 화가'로 알려졌다. 193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고, 평양에서 이중섭, 한묵 등과 6인전을 열었다. 일본으로 유학하여 박고석, 이중섭과 함께 동경제국대학 서양화과에서 공부하였고, 1957년 한묵, 천경자, 박고석과 모던아트협회를 창립하고 창립동인전에 참여하였다. 서울 수복 후 돈암동 집에 아틀리에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하였다. 부산 피난 시절 각별하게 지낸 시인 김수영, 소설가 박연희와 교류하며 김수영의 시에 삽화를 그려 주기도 했다. 초기에는 웅장한 산을 주로 그렸으나 1960년대 우연히 간 장미원에서 장미에 매혹된 뒤로 40여 년 동안 장미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64 김종하
金鍾夏

1918~2011
서울 출생
동소문동, 보문동

초현실주의 화풍을 개척한 화가이다. 1932년 최연소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주목을 받으며 화단에 데뷔했다. 일본 동경제국 미술학부에서 유학하고,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화랑인 반도화랑을 개관하며 '김종하· 박수근' 전시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프랑스로 유학해 고전회화와 현대회화를 넘어선 초현실주의 화풍의 작품을 그린다. 동소문동과 보문동 일대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1964년에는 삼선교에 홈아트 연구실을 열어 생활미술을 가르쳤다. 직접 가봉한 옷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패션쇼를 열었다. 디자이너로 앙드레 김이 그의 제자이다. 2002년 생존 화가로는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았다. 말년까지 자연과 여인을 소재로 한 환상적인 누드연작을 선보이다 보문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다.

65 박래현 雨鄕 朴崍賢

1920~1976 | 평북 평양 출생 | 성북동

원시성과 추상성을 작품에 담은 화가이다. 일본 동경여자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고, 1956년 대한미협전에서 〈이른아침〉, 국전에서 〈노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순수 추상 작업을 시작하고, 판화 등 새로운 매체를 시도한다. 운보 김기창과 혼인 한 후 1954년 성북동 55-1번지에 집을 마련하였다. 1962년에는 성북동 집에 30여 평인 화실을 짓고 작품 활동에 전념한다. 1967년 미국 뉴욕에서 남편 김기창과 부부전을 개최한 뒤 7년 동안 뉴욕에서 판화연구에 몰두하였다. 새, 닭, 물고기 문양 등을 주요 소재로 동판화를 만든다. 1974년에는 귀국전을 개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암으로 2년 간 투병 끝에 1976년 성북동 자택에서 숨을 거둔다.

성북동 집 화실에서 김기창과 박래현

우리가 성북산협城北山峽 에 자리잡았을 때는, 그곳에 서너 채의 굵은 별장과 띄엄띄엄 몇 채의 초가집이 있었을 뿐으로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되 완전히 산에 사는 것 같았다.
– 박래현의 글 –

66

변종하

石隱 卞鐘夏

1926~2000
경북 대구 출생
성북동

입체감과 생동감을 살린 요철회화凹凸繪畫를 선보인 화가이다. 해방 후 미술교사, 추천작가로 활동하다 1960년 프랑스로 유학하였다. 문학적 상상력을 담은 〈돈키호테〉, 〈우화〉, 〈서정적 풍경〉 시리즈 등과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도화陶畫 작품이 대표작이다. 13년이 넘는 투병생활 중에도 전시를 열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였다. 1980년 성북동 330-484번지에 집을 짓고, 2층에 화실을 두었다. 집을 둘러싼 담과 마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의 높이와 모양까지 신경을 썼다. 화실 벽면에는 석고를 뭉쳐 던져 하나씩 펴 바르고 해마다 먹물을 먹여 자연스러운 색깔이 배어나게 했다. 그가 세상을 뜬 뒤 성북동 집은 그의 작품과 화실을 전시하는 석은변종하기념미술관이 되었다.

67

표승현

表丞鉉

1929~2004
황해도 안악 출생
정릉동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남긴 화가이다. 한국전쟁 때 월남,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공부하였다. 1957년 국전에서 특선한 이후 40여 년 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제자를 양성하였다. 정릉동에 집을 두고, 학교 근처 동선동에 아틀리에를 마련하여 작품활동을 이어간다. 1972년 국전에서 작품 〈음양〉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유물을 본 이후부터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영원히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화陶畫를 시작했다. 이후 철화백자 제작의 권위자인 황규동과 함께 소나무와 매화 등을 소재로 반추상 작품을 선보이는 도화전을 개최하였다.

68

전성우

雨松 全晟雨

1934~
서울 출생
성북동

해방 후 1세대 추상화가이다. 간송 전형필의 아들로 성북동 북단장北壇莊에서 보화각 소장 문화유산과 집에 찾아온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인들을 보며 자랐다. 부산 피난 중에 서울대 미대에 입학하지만, 현대미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한다. 미국에서 작가로 이름을 알려가던 전성우는 귀국하여 1965년 신문회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국내외에서 전시를 열었다. 우리나라 화단에서 처음으로 아크릴릭Acrylic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형異形캔버스 작품을 발표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보성중고등학교 교장을 맡아 20여 년 동안 교육자로 지냈다. 환갑이 되던 해 퇴임을 하고 〈청화만다라〉 연작을 발표하고 있다. 2013년 만들어진 간송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69

오윤

吳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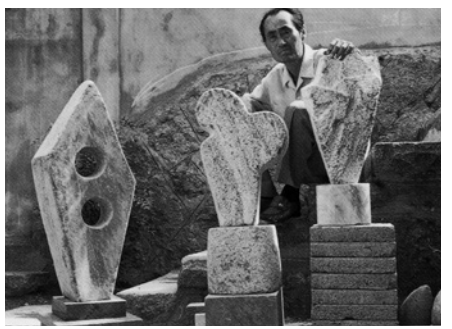
1946~1986
경남 부산 출생
돈암동

민중미술을 개척한 판화가이다. 소설가 오영수의 장남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현대문학》의 초대 편집장을 맡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1957년 돈암동으로 이사하였다.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에 다니며 김윤수, 김지하, 오경환 등과 사회 비판과 민중 운동에 대한 생각을 키웠다. 1976년 수유동에 작업실을 열고 민담, 무속화, 탈춤, 굿 등 민중 문화나 암울한 세태를 향한 저항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었다. 〈탈춤〉, 〈노동의 새벽〉, 〈대지〉 등의 작품 통해 민중 예술의 영역을 넓혔다. 간경화로 일찍 요절하였다.

70 김종영 又誠 金鍾瑛

1915~1982 | 경남 창원 출생 | 삼선동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이다. 1932년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에서 일등상을 받아 재능을 인정받았다. 휘문고보에서 평생의 은사인 장발을 만나 조각을 시작하고, 그의 권유로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였다. 1948년부터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1948년부터 돈암동(현재 삼선동)에 30평 쯤 되는 집을 구해 살았다. 피난 후 서울대학교 뒤쪽에 있던 공동관사에서 7~8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삼선동에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다. 언덕 위에 있는 양옥집으로 조각 작업을 하기 좋은 한적한 곳이었다. 1953년에는 영국 테이트갤러리 공모전에 〈무명정치수를 위한 모뉴멘트〉를 출품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공모전에 입선하였다. 같은 서울대 미대 교수인 한국화가 장우성과 2인전을 열고, 〈3·1독립선언기념탑〉과 같은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재료인 나무, 돌의 본연의 물성物性을 드러내는 추상 조각을 남겼다.



삼선동 집 마당에서 작품과 함께

71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 함남 함흥 출생 | 동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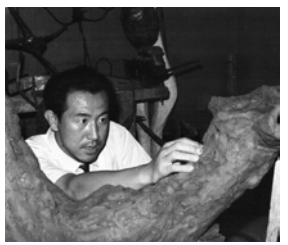
동선동 집 아틀리에에서

테라코타와 건칠乾漆 작품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조각가이다. 1949년 입학한 무사시노미술학교에서 부르델의 계보를 잇는 시미즈 다카시에게 사사하였다. 이과전二科展에서 석조 작품인 〈기사〉, 〈마두〉로 최우수상을 받는다. 1955년 무렵부터 테라코타 작업을 시작하였다. 1959년 귀국 후 동선동 집 옆에 2년에 걸쳐 시멘트와 목재로 천장을 높인 작업실을 짓고, 한쪽에 가마를 만들었다. 홍익대 조각과와 서울대 건축과,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수화랑과 명동화랑, 일본 니혼바시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러나 건강 악화와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아틀리에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 〈지원의 얼굴〉, 〈애자〉, 〈땋은 머리〉 등 테라코타 흉상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자취가 남은 아틀리에는 유족이 기증하여 2006년 시민문화유산으로 보전되었다.

72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 서울 출생 | 성북동

'철 조각의 선구자'라 불리는 조각가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김종영에게 조각을 배웠다. 석고와 돌, 나무를 조각 재료로 쓰는 다른 조각가들과 달리 철과 생활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새로운 추상조각을 선보였다. 성북고등학교(현재 홍익대학교부속중고등학교)와 모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같이 근무한 문학평론가 이어령과 가깝게 지냈다. 1965년 동숭동에 있던 학교와 가까운 성북동으로 이사를 했다. 주변으로 나무가 울창한 곳에 집을 짓고 마당 뒤편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1970년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때를 맞추어 서울, 추풍령, 부산 세 군데에 추상조각을 세워 달라는 건설부의 주문을 받아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다.



작업 중인 송영수

인간이 예술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인간이 성취한 것을 주의
깊게 응용하는 방법, 즉 사람의 미점을
잘 선택하여 종합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원시적인 본원으로 자연 속에서
탁월적인 것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길을 걷는 예술가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지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도에서 벗어난 예술을
비평하는 사람은 적고 독창적인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송영수의 말–

73 최만린 崔滿麟

1935~ | 서울 출생 | 정릉동

다양한 '생명'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내는 조각가이다. 1947년 경기중학교에 다닐 때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나온 박승구의 제안으로 조각을 시작하였다. 1949년 열린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친구 얼굴〉을 출품하여 최연소 나이로 입선을 한다. 서울대 미술대학에서 김종영과 김세중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 모교에서 강사, 교수로 재직한다. 1973년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프랫대학에 유학하는 중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 영감을 받아 '생명'에 집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돈암동 전셋집을 거쳐 1965년, 정릉동에 손수 집을 짓는다. 하얀 담 위에 빨간 기와를 올린 이국적인 모습의 집이었다. 택지개발이 되며 근처에 두 번째 집을 지어 이사하고, 집 옆으로 작업실을 따로 마련하였다.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내며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일하였다.

미술실에서 소조를 하다가 바닥에 흙을
떨어뜨리자 조용히 다가와 손수 그것을
주워 박승구 선생님은 '흙은 살이거든,
살을 다루듯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조각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2만여 년 전 만들어진
'빌레도르프의 비너스'를 화집에서 봤는데
"이거다" 몇 만 년 전에 그분이 이 상을
만드는 그 마음 오늘날 내가 이런 조각가가
되면 좋겠고 생각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을
거부하는 인간이 과연 있겠는가. 동서양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감이다.
– 최만린의 말 –

정릉동 집 아틀리에에서 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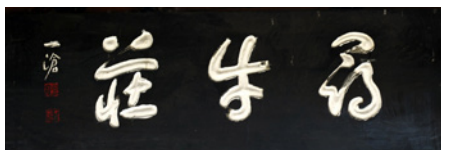
74

유치웅

一滄 俞致雄

1901~1998
충남 부여 출생
성북동

'심우장' 편액을 쓴 서예가이다. 1945년부터 동성중학교 교사와 보인상업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고, 1948년에는 위당 정인보의 권유로 초대 감찰위원회 감찰관을 지냈다. 이듬해에는 '부운장학회'를 설립하여 후학 양성의 뜻을 이어갔다. 1972년 부인과 사별한 이래 성북동에서 여생을 보냈다. 마당 한 편에는 작은 정원을 꾸며 장미와 국화를 가꾸었고, 사랑방에는 정인보가 선물한 매화를 키웠다. 위창 오세창이 써준 재호齋號「일쾌헌一快軒」이 걸려있었다. 오세창이 만해 한용운의 집 '심우장' 글씨를 써 준 편액이 없어지자, 유치웅이 오세창과 인연, 한용운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글씨를 썼다.



유치웅이 쓴 심우장 현판

75

김충현

一中 金忠顯

1921~2006
경북 안동 출생
동선동

한글서체를 개발하는데 힘을 쏟은 서예가이다. 1938년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에서 서예부문 최고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와 같은 옛 글씨체를 참고하여 '훈민정음체'를 만들었다. 1956년에는 서예에 대한 연구와 신예를 발굴하기 위해 김응현, 김용진, 노수현, 민태식과 동방연서회東方硏書會를 창립하였다. 독립기념관 현판, 유관순열사비 비문 등을 썼다. 소전 손재형과 함께 당대의 대가로 꼽혔으며, 반듯한 해서체를 토대로 한 '일중체'를 만들었다. 1978년 동선동에 집을 짓고 뜰에 사군자와 나무를 가꾸며 지냈다.

76

정환섭

鶴南 鄭桓燮

1926~2010
충남 홍성 출생
성북동

전통서예의 현대화를 모색한 서예가이다. 소전 손재형에게 사사하였으며 추상에 가까운 파격적인 서체를 선보였다. 1956년 한국미술가협회전에서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을 시도하여 주목받았고, 이후 서예를 그림의 한 요소로 작품에 표현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1978년 국정교과서 『중학서예』를 발간하여 서예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예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북구에서 주최하는 성북장학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성북동 집에서 작고하였다.

77
강창규
菖園 姜昌奎

1906~1977
경남 함안 출생
안암동

우리나라 건칠공예의 전통을 이은 공예가이다. 열여섯 살에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우에노도쿄[上野東京]미술학교 공예분야에서 공부하였다. 연구과를 수료하던 1935년 조선미술전람회와 일본제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하였고, 일본왕 접견실 실내장식가로 위촉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인 포도, 석류, 물고기 등을 자개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월남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작품 활동을 하다가, 한동안 안암동 집에서 칩거한다. 197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초대작가로 재기하였다. 2009년 〈건칠반乾漆盤〉이 등록문화재 제451호로 지정되었다.

78
김중업
吾心 金重業

1922~1988
평남 평양 출생
성북동

김수근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이다. 평양중학교를 졸업한 뒤, 1941년 요코하마[橫濱]고등공업학교에서 공부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배웠다. 1952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건축가 대표로 참석하고, 파리에 있는 르 코르뷔지에 건축사무소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건축설계의 토대'라는 철학으로 건축을 배운다. 1956년 귀국하여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교수를 맡고,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를 설립한다. 한때 대외적인 활동을 접고 성북동에 칩거하며 작업에만 몰두하였다. 이 시기 시인 김광섭의 2층집을 설계해 주기도 했다. 197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였다. 대표작으로 주한프랑스대사관, 제주대학 본관, 삼일로빌딩 등이 있다.

음악·무용

국악·한국무용
79 조택원 ~ 85 이생강
서양음악
86 채동선 ~ 95 금수현

79 조택원

趙澤元

1907~1976
함남 함흥
돈암동

최승희와 함께 우리나라 신무용을 개척한 선구자이다. 1927년 이시이[石井漠]의 제자로 들어가 최승희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양 모던댄스를 배웠다. 1932년 귀국 후 '조택원무용연구소'를 개설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무용발표회를 연다. 첫 발표회 때 선보인 장삼과 고깔 차림으로 서양 음악에 맞춰 안무를 짠 〈승무의 인상〉은 그의 대표작이 된다. 1943년 용산구에 있던 무용연구소를 돈암동으로 옮겼다. 1947년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현대무용사의 거장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순회공연을 한다. 귀국하여 우리나라에 무용극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전통무용과 서양무용의 기법을 두루 조합한 신무용을 전파했다.

80 김명환 一山 金命煥

1913~1989 | 전남 곡성 출생 | 석관동

판소리 고법鼓法의 명인이다. 전라남도 곡성의 명창 장판개, 임방울, 송만갑과 같은 당대 최고의 판소리 명창과 고수를 찾아다니며 소리와 고법을 배웠다. 1960년대 서울로 진출하여 판소리 공연에서 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도 있듯이 판소리 명창들은 김명환의 북에 맞추고, 추임새를 받으며 소리를 하고 싶어 했다. 판소리 이론에도 조예가 깊어 이론과 실기에서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 판소리, 가야금산조 등 공연과 음반에 참여하였다. 1971년부터 10여 년 동안 석관동에 거주하며 제자들이 모여 만든 '일산회'와 공연을 열어 국악을 알렸다. 1978년 첫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81 박봉술 靑雲 朴奉述

1922~1989 | 전남 구례 출생 | 석관동, 장위동

판소리 동편제 명창이다.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판소리 명창이었던 아버지 박만조와 둘째 형 박봉채로부터 판소리를 전수받았다. 소리 연습을 지나치게 하다 목이 상하자, 탁하고 고음을 내지 않는 암성(가성)으로 소리를 냈다. 1940년 명창 임방울이 이끌던 동일창극단에 입단하여 정광수, 박초월 등과 함께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섬진강 동쪽 구례, 남원, 곡성 등지에서 불리는 판소리인 동편제는 웅장하고 진중하며, 끝마무리를 딱 끊어 떨어지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송만갑-박봉술-송순섭으로 동편제 계보가 이어진다. 판소리 사설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순천 국악원에서 판소리를 가르쳤고, 박봉술에게 사사한 안숙선, 김일구 등도 스승을 이어 중요무형문화재가 되었다.

박봉술과 김명환

82 강선영
姜善泳

1925~
경기도 안성 출생
돈암동, 성북동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太平舞 기능보유자이다. 열다섯 살 때 전통 음악과 춤을 집대성한 한성준의 고전음악연구소에서 무용을 정식으로 배웠다. 1943년에 부민관에서 첫 무대에 오른 뒤 우리나라와 만주 · 일본 등지를 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해방 후 '강선영무용연구소'를 개설하고, 〈초혼〉, 〈수로부인〉 등 창작무용을 발표하였다. 170여 개 나라에서 천 오백 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전통춤을 알렸다. 서라벌 예술대학 무용과 교수, 국립무용단 단장, 국회의원, 예술단체 임원 등을 맡으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60년대 돈암동에 자리를 잡고,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전수소를 열어 제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전통춤을 가르치고 있다.

83 김진걸
金振傑

1926~2008
서울 출생
성북동, 돈암동

산조춤에 능한 무용가이다. 황해도 군수인 백부의 집에서 자란 김진걸은 백부가 성북동으로 이주하며 함께 서울로 온다. 1943년에는 돈암동에 있던 조택원무용연구소에 들어가 무용을 배웠다. 무용극보다 감정 표현을 강조한 예술무용인 무용시舞踊詩에 관심을 두고 〈산조散調〉 작품을 만든다. 1989년 4백여 쪽 분량에 달하는 『김진걸산조춤 무보집』에 산조춤의 기본 형식과 동작, 호흡 등을 기록하여 전승한다. '김진걸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1955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돈암동 지역에 거주하였다.

84 김진진
金眞眞

1933~
서울 출생
장위동

여성국극을 대표하는 배우이다. 이모이자 여성국극의 창시자로 '여성국악동지사'의 대표를 맡던 임춘앵에게 국극을 배운다. 열아홉 살이 되던 1952년 〈공주궁의 비밀〉의 주연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다. 이때부터 본명 대신 주인공 진진옹주의 이름을 예명으로 삼았다. 1958년 '진경여성국극단'을 창립하고 국극의 성황을 이끈다. 그러나 영화가 보급되며 국극 인기가 줄어들고, 활동무대가 점차 좁아진다. 이후 1970년대 장위동으로 이사하여 임춘앵과 함께 '임춘앵국악연구소'를 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춘앵이 세상을 떠나며 국악연구소를 이어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성국극의 명맥을 잇기 위해 힘썼다.

85 이생강
竹鄕 李生剛

1937~
일본 동경 출생
삼선동, 성북동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대금산조 기능보유자이다. 다섯 살 무렵부터 아버지에게 단소와 피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해방 후 대금 산조 명인 한주환을 스승으로 삼고, 대금, 태평소, 단소 등 부는 악기의 명인 스물 세 명에게 남도, 서도, 경기지역 음악을 모두 전수 받았다. 무용 음악 반주자로 활동하던 중 1960년 세계민속예술제 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독주 활동을 시작한다. 재즈나 팝송 등 다른 장르와 서양악기와 협연하고, 앨범을 내는 한편 대금과 단소 교본 발간, 제자 양성, 국내외 공연 등 국악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혜화문 건너편 삼선교에 4층 건물을 짓고, 종로구 와룡동에 있던 대금전수소를 집 근처에 마련하였다. 집을 다시 돈암동으로 옮기고, 전수소는 성북동으로 이사하였다.

86 채동선
蔡東鮮

1901~1953
전남 보성 출생
성북동

서양 음악을 토착화한 작곡가이다. 홍난파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일본과 독일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운다. 1929년 귀국하여 독주회와 현악4중주단 활동을 하고,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고향〉을 발표한다.
이무렵 피아니스트 이소란과 혼인하여 성북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일제 강압이 심해지자 칩거하여 창씨개명에 반대하고 우리 민요와 국악을 채보하는데 열중한다. 해방 후 〈동백꽃〉,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을 작곡하였다. 합창음악과 전통음악에도 관심을 가져 고려합창협회를 조직하고, 민요를 편곡한 합창곡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며 마당, 장독 구석마다 악보를 묻어 두었다. 피난 중에 세상을 떠나고, 10년 뒤에서야 악보가 마당에서 발견되었다.

87 전수린
全壽麟

1907~1984
개성 출생
동선동

〈황성옛터〉의 작곡가이다. 12살 때부터 작곡을 공부하고, 개성 호수돈 여학교의 교장선생에게 서양음악과 바이올린을 배운다. 1920년대 후반 무용가 조택원의 소개를 받아 동반예술단에 입단하여 반주와 효과음악을 담당하고, 홍난파가 주도하던 연악회硏樂會에 참여한다. 1932년 빅터레코드에서 출반한 레코드 〈황성의 적〉(황성옛터)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는다. 빅터레코드사의 첫 전속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신민요부터 트로트, 서양풍의 음악까지 여러 분야의 노래를 창작한다. 1970년 돈암동 미아리고개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 학생들을 가르쳤다. 동선동 3가 133번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다.

88 한규동
韓圭東

1912~1996
서울 출생
삼선동

한국 가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악가이다. 외사촌형이자 향토가극의 창시자인 테너 안기영에게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1939년 조선일보 주최의 음악콩쿨 성악부에서 입상하고, 일본고등음악학교에서 유학한다.
1944년 5월 부민관에서 제1회 독창회를 개최한다. 1949년 1월에는 우리나라 오페라의 발판을 마련한 공연 〈파우스트Faust〉를 번역, 각색하고 주연을 맡는다. 오페라와 실내악을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1955년 향성회響聲會를 조직하고, 『한국가곡집』을 편찬하며 우리나라 가곡을 '한국가곡'이란 정식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1950년대부터 삼선동에 거주하였다. 1973년 6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아내 이관옥과 음악회를 열고 한국 가곡을 알렸다.

89 이인범
李仁範

1914~1978
평북 용천 출생
성북동, 석관동

우리 가곡과 오페라를 알린 성악가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보여 연희전문학교 음악부원으로 활동하며 현제명의 지도를 받았다. 1929년부터 빅터레코드사에서 창작 가곡과 외국 가곡을 취입했다. 일본 고등음악학교에서 유학, 1939년 전일본성악콩쿨대회에서 1등 없는 차석의 성적을 거둔다. 졸업 후 여러 차례 독창회를 열고, 귀국 후 현제명이 만든 창작오페라 〈춘향전〉의 주인공을 맡아 전국 순회공연을 다녔다. 한국전쟁 때 사고를 당해 한동안 음악활동을 하지 못했다. 성북동 집에서 요양하던 중 1956년 재기에 성공하여 한국오페라연구회를 창설하고, 오페라에 출연한다.

90 윤이상 尹伊桑

1917~1995 | 경남 산청 출생 | 성북동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이다. 14살 때부터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하였고, 1935년 일본 오사카음악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 해방 후 1952년까지 통영과 부산에서 음악교사 생활을 하다 이듬해 서울로 올라 와 피아노를 팔아 성북동에 한옥 한 채를 마련한다. 이때 길 건너편에 살던 조지훈이 작사를 하고 윤이상이 곡을 붙여 노래를 짓기도 하였다. 기악곡이 드물던 당시 피아노3중주곡과 현악4중주곡을 만들어 작곡집을 출판하였다.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이후 1959년 독일에서 열린 음악제에서 쇤베르크가 정립한 12음계에 한국 정악의 색채를 담아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윤이상은 가야금의 현을 뜯는 기법을 바이올린에 도입하고, 대금의 떨림을 플루트에 재현한다. 1971년 독일에 귀화하고 이듬해 뮌헨올림픽 개막축하 오페라에서 《심청》을 공연하였다. 교향곡부터 오페라까지 1백 50여곡을 남겼다.

최정희, 조지훈, 윤이상, 1955

91 김대현 金大賢

1917~1985
함남 함흥 출생
정릉동

동요 〈자전거〉와 가곡 〈자장가〉의 작곡가이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하는 〈자전거〉는 중학생일 때 습작으로 지은 곡이다. 가사는 아동문학가 목일신이 보통학교 5학년 때 쓴 것이다. 〈자장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은 곡으로, 성악가 이관옥이 처음 불러 대중에게 알려졌다.

창작오페라가 거의 없던 시절 부산극장에서 1952년 오페라 〈콩쥐팥쥐〉를 공연하여 주목을 받았다. 서라벌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1967년에 작곡가 금수현과 함께 '새음악연구원'을 만들어 국악을 현대화하고 알리는 데 힘썼다. 1970년대 북한산 자락 정릉동 양옥집으로 이사하였다. 작고할 때까지 동요 1백여 곡과 가곡 60여 곡, 성가곡 30여 곡을 남겼다.

92 이봉수 李奉秀

1917~1996
황해도 은율 출생
삼선동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초대 악장을 맡은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평양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선교사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일본고등음악학원에 유학한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때 징집을 피해 김동조, 전봉초 등과 만주 신경교향악단에서 연주자로 활동한다. 1957년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초대 악장을 맡아 이끌었다. 1960년대 삼선동으로 이사한다. 이관옥과 한규동 부부가 마련한 집에 살던 전봉초 가족이 근처로 이사한 곳에 들어간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전봉초와 함께 실내악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93
이관옥
李觀玉

1918~1976
평남 순천 출생
삼선동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길을 개척한 성악가이다.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두성발성법을 기본으로 한 벨칸토 창법을 배웠다. 귀국 후 연 독창회로 주목받으며 성악가로 인기를 얻는다. 1950년 현제명이 제작한 우리나라 첫 창작 오페라 〈춘향전〉에서 이인범과 함께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다.
삼선동 집은 성곽이 바라보이는 양옥집이었다. 세 채가 모여 있는 집을 마련해 아랫집은 신혼살림을 차린 후배 음악가 전봉초 가족에게, 윗집은 소설가 정한숙 가족에게 내어주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키웠고, 성악가였던 남편 한규동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한국 성악을 알렸다.

94
전봉초
全鳳楚

1919~2002
평남 안주 출생
삼선동

실내악 운동을 펼친 첼로 연주가이다. 숭실중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1세대 첼로연주가인 김태연의 연주를 듣고 감동하여 첼로를 배운다. 일본 동경제국음악학교에 유학하고, 해방 후 고려교향악단과 서울교향악단에서 수석 연주자를 맡았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로 있으며 실내악과정을 개설하고, '실험악회', '푸리마 트리오', '서울실내악협회' 등을 조직해 실내악을 알린다. 그가 우리나라 최초로 창단한 실내 관현악단인 바로크합주단은 2015년 창단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전쟁 후 성악가 이관옥이 살던 삼선동 집으로 이사하였고, 몇 년 뒤 근처에 집을 마련하였다.

95 **금수현** 洛初 金水賢

1919~1992 | 경남 김해 출생 | 정릉동

가곡 〈그네〉의 작곡가이다.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하였다. 〈그네〉는 장모인 김말봉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이다. 부산에서 윤이상과 '노래하자회'를 만들어 매주 한곡씩 노래를 가르치는 '국민개창운동'을 벌었다. 전문 음악잡지가 귀하던 때인 1970년 잡지 《월간 음악》을 만들어 음악에 대한 정보와 음악계 소식을 알렸다. 한글교육에도 뜻을 두어 '김金'에서 '금'으로 자신의 성姓을 고쳐 읽고,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 지었다.
1960년대 정릉동에 땅을 마련하여 직접 집을 설계하고, 정릉천의 물과 모래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었다. 둘째 아들 금난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릉동 집에서 가족들과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고 보더라
한번 구르니 나무끝에 아련하고
두 번을 거듭하니 사바가 발 아래라.
마음의 일만근심을 바람이 실어가네
– 〈그네〉, 1946 –

성북구 음악가들의 교류

우리나라 서양음악은 홍난파, 현제명, 채동선 등 1세대 음악가들이 등장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채동선은 1930년대부터 한국 음악계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민족의 정서를 가곡에 담기 위해 노력한다. 채동선은 1933년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여 가곡 〈고향〉을 만들었다. 정지용의 월북으로 노래가 금지되자 이관옥이 새롭게 가사를 써서 〈고향 그리워〉라는 노래로 발표했다.

193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음악전문교육기관인 경성음악전문학원이 생기며 이관옥이 교수로 참여하는 가운데 개교 3주년 기념음악회의 초청연주자였던 전봉초와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며 초대 음악교수로 함께 일하고, 삼선동 이웃으로 지낸다.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악단인 고려교향악단에 윤이상, 이인범, 전봉초, 이봉수 등이 참여한다. 1950년 현제명이 제작한 우리나라 첫 창작 오페라 〈춘향전〉의 주인공은 이관옥과 이인범이 맡았고, 이인범은 이듬해 김대현이 작곡, 지휘한 오페라 〈콩쥐 팥쥐〉에 참여하였다.

문화

96 이홍근 ~ 100 최순우

96

이홍근

東垣 李洪根

1900~1980
개성 출생
성북동

문화재수집가이다. 개성박물관장 우현 고유섭에게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하였다.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과 교류하며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1967년 종로구 내자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미술관인 동원미술관을 건립하고, 1971년 성북동에 석조 건물 두 채를 짓고 이전하였다. 문화재 수집과 보존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 미술관 시설에도 공을 들였다. '유물을 자손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유언에 따라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품 4,941점을 기증하였다.

동원미술관

97

박병래

水晶 朴秉來

1903~1970
충남 논산 출생
돈암동

문화재 수집가이자 성모병원 초대 병원장이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성모병원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폐결핵 전문병원 성루가병원을 세웠다. 조선총독부병원에서 일할 때 도자기에 관심을 가진 이후 위창 오세창, 간송 전형필, 도상봉 등과 교류하며 안목을 키우고 백자를 수집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시기의 골동상과 수집가들 사이에 벌어진 일화를 모은 수필집 『도자여적』을 남겼다. 40년 동안 모은 소장품 360여 점을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98

임석재

任晳宰

1903~1998
충남 논산 출생
안암동

우리나라 민속을 정리하고 알리는데 힘쓴 학자이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우며 민족의 심성을 알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전국을 다니며 옛날이야기를 수집하면서 민속학에 관심을 갖는다. 졸업 후 최남선, 손진태, 송석하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에 참여하고, 기관지 《조선민속》에 민속관련 글을 발표 한다.
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난 뒤 남북한의 구전설화 2,700여 가지를 채록하고 1993년 12권짜리 〈한국구전설화〉를 펴냈다. 전국의 설화 · 민요 · 무가 · 민속극을 찾고 알리는데 힘쓴 임석재는 1960년대부터 40년간 살던 안암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99 전형필 澗松 全鎣弼

1906~1962 | 서울 종로 | 성북동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을 지킨 문화재수집가이다. 휘문고보 은사인 고희동의 소개로 당대 최고의 감식안을 가진 서예가 오세창을 만나며 문화재 수집을 시작하였다. 1938년 성북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인 보화각葆華閣을 건립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신윤복의 〈미인도〉, 겸재 정선의 〈청풍계〉, 추사 김정희와 표암 강세황의 글씨 등 수십 년에 걸쳐 귀중한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였다. 일본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찾기 위해 거액을 들이고, 일본까지 찾아가 우리 문화재를 다시 사오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보화각 소장품을 가지고 가려 할 때 최순우와 손재형이 이송 지연작전을 벌이는 기지를 발휘해 반출을 막았다.

1960년 진홍섭, 황수영, 최순우 등과 함께 미술사학 연구 모임인 고고미술동인회를 만들고, 동인지 《고고미술》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민족교육이 절실함을 통감해 1940년 재단법인 동성학원을 설립하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여 교육 사업을 펼친다.

간송 전형필

100 최순우 兮谷 崔淳雨

1916~1984 | 개성 출생 | 성북동

미술사학자이자 박물관인이다. 개성시립박물관에서 우현 고유섭을 만나 문화유산에 눈을 뜨게 된다. 국립박물관에서 근무하며 도자기와 전통 목공예, 회화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다. 1974년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하여 보존과학, 전시기법, 교육 등 박물관의 발전에 힘썼고,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글을 신문, 잡지에 연재하며 일반인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렸다. 현대미술에도 관심을 가져 김환기, 김기창, 박수근, 변종하 등의 작가들과 교류하였고, 1965년에는 이경성, 이구열, 오광수, 김중업 등과 '한국미술평론가협회'를 만들고 초대회장을 맡았다.

1976년 궁정동에서 성북동 126-20번지로 이사한다. 1930년대 지어진 한옥을 그의 안목으로 가꾸고, 마당에는 소나무, 산사나무, 모란 등 우리 산하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을 심었다. 조선시대 선비의 방치레를 한 사랑방 위에는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중이다'라는 뜻의 '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 편액을 걸어두었다.

유고를 모아 『최순우전집』(1~5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등이 출판되었다. 2002년 성북동 집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보전되어 혜곡최순우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북동 집에서 최순우

나는 곧잘 새벽잠에서 깨어나 서창의 후련한 용자用字
미닫이창에 그림자 진 신비로운 새벽 달빛을 혼자 보기
아쉬워하기도 했다. 정갈하고 조용하고 밝은 서창가에
앉아서 하오의 한나절을 부스럭거리노라면 낙엽소리,
풍경 소리에 해쓱한 뒤뜰 산나무들이 석양 햇빛에
그림자 져 주기도 하고, 된서리 내린 날 언뜻 미닫이를
열면 이름 모를 산나무에는 주홍빛 잔 열매들이 단풍
사이로 알알이 빛나서 꽃보다도 고운 데에 새삼
놀라기도 했다.
– 최순우, 「달빛 노니는 창살 이야기」 –

부록

성북백인 동정
지도
문화유산
색인
출처

성북백인 동정

첫 걸음의 기억

『토지』 작가 박경리, 김동리의 추천으로 등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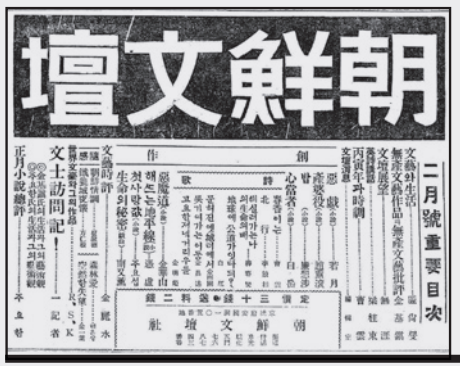
김동리가 살던 돈암동 집에 찾아가 원고를 보여

가을이었던지 여름이었던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장독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마루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선생님은 몸집이 작달막하고 얼굴은 둥그스름했으며 책을 통해 상상해온 문사하고는 거리가 먼 인상이었다. ／박경리

『남녘사람 북녘사람』 작가 이호철

한국전쟁 때 틈틈이 습작「오돌할멈」을 염상섭에게 보여

(염상섭 선생의 친척에게) 원고를 맡긴 지 일주일이나 지나, 세탁부의 그 아줌마가 경비원 숙소로 나를 찾아와서 불쑥 원고 봉투를 내밀었다. … 맨 뒷장 여백에 염선생께서 몇 자 쓰신 것부터 읽어 보았다. 매우 소질이 있어 보이니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라하는 격려 말씀이었다. ／이호철


朝鮮文壇

二月號重要目次

文士訪問記

팥죽시인, 노산 이은상

춘원이 지어준 아호 耳公는 그가 그 단구·풍모에 귀가 유난히 두텁고 주글주글을 야유하는 거 같아 내가 고향 뒷산 이름 노비산鷺飛山에 좇아 노산鷺山이 어떠냐 하였더니 그 뒤부터 그가 줄고 이 호를 써왔다. ／양주동

사흘이 멀다 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에 우리는 친해졌다. 서로 농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노산과 나는 대개 팥죽 한 그릇씩을 청해 놓고, 시조를 평하곤 해 노산 시조를 '팥죽시조'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서항석

시엽산방팔영 柿葉山房八詠

병인년 여름 내가 서울 동선동에 집을 지었다. 이곳은 본디 감나무가 많이 있는 언덕으로 숲이 매우 그윽하여 마음에 먹었다가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양지가 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여 여름 겨울에 따뜻하고 서늘하여 살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초목도 잘 자라며 사철에 여러 가지 꽃이 성하게 피고 열매도 잘 맺는다. ／김충현

* 문화예술인들의 글과 활동이 담긴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최순우와 전형필

간송 전형필과 벽오동 심은 뜻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을 1950년 4월, 그 때 경복궁 앞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국보 특별 전람회장에서였으니까, 그분과의 이승에서 인연은 그분이 돌아간 1962년 1월 26일까지 불과 12년간의 지기였다. 6.25 사변의 회오리 속에서 그분과 나는 민족 문화재를 지키느라고 보람을 같이 했으며, 부산 피난살이를 겪으면서 한층 가까워진 그분과 마음의 거리를 나는 오붓하게 느끼고 있었다. 늘 봄처럼 온후한 얼굴, 만년 청년처럼 젊은 모습 그리고 드물게 보는 맑고 따뜻한 인품으로 나는 사뭇 감싸이는 듯만 싶었다. ／최순우

그리워하는 마음

조지훈 선생을 기억하며

1967년 정초, 김관식 시인과 함께 성북동 댁으로 세배를 가서다. 점심이 겨우 지나 시작된 술자리가 자정에 지나서야 끝났던 일, 밖에 나오니 발목이 빠질 만큼 쌓인 눈 위에 계속 함박눈이 퍼붓던 일 등 그날의 일이 떠오르며, 그의 시와 사상이 더 깊이 이해될 듯한 느낌이었다. ／신경림

고故 박계주 형의 영전에

형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음을 접했을 때 새삼스럽게 현실이 야속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 와병한지 근 3년만에 운명하셨습니다. 형, 그 전날 형과의 대화속에서 형의 따스로운 체온을 느꼈듯이 이제서야 형의 깊은 오뇌를 알아차린 듯합니다. … 형의 <순애보>의 독자가 이 강산 방방곡곡에 있듯이 형은 거름을 끼쳐주시고 먼저가셨을 뿐입니다. 형, 서러워 마십시오. 부디부디 고요히 잠드십시오. ／박연희

現代文學

연재소설「용호의 성」

1969년 4월 16일부터 경향신문 연재 박용구 글 송영방 그림.

화가의 말 "이야기가 고려시대라는 점으로 고증을 하기엔 퍽 어렵겠으나 충분한 자료 수집과 참고는 물론 독립된 그림으로서 이야기도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붓을 잡아볼까 한다."

화실탐방

산정 서세옥의 무송재

성북동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터에 무송재撫松齋, 작업실과 생활 공간으로 쓰는 양옥이 앞 뒤로 들어서 있다. 무송재는 창덕궁 연경당을 본 따 지은 집으로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뜻이다.
아틀리에는 천장을 높게 만들어 막힘없는 공간감을 주었다. 서재에는 고서가 빽빽하고, 책장에는 붓과 전각 도구가 가득하다. 마당에는 수십 년 간 수집한 수석과 석물,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청화 만다라'의 화가 전성우

성북동 북단장 간송미술관 뒤 편에 자리잡은 자택의 화실에서

1960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 선정 신진작가 30인 중 한 명
귀국 후 보성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동양 정신을 담은 추상회화를 선보이며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소정화실

한국화가 소정 변관식 동소문 밖 언덕에 있는 열아홉 칸 한옥의 건넌방에 화실을 두고 창작활동

모던아트협회 결성
박고석, 황염수, 한묵, 이규상, 유영국 참여

1957년 1월 반反 아카데미즘 계열의 화가들이 4월 9일부터 15일까지 동화화랑에서 열렸으며 협회원들의 작품 34점이 전시되었다.

아름화랑 개관전

최순우 씨가 지은 이름 '아름'을 변종하 씨가 목판에 새겨 달아 권옥연, 김기창, 변종하, 서세옥, 황염수, 최만린, 최순우 등의 소품을 전시.
1973년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이과전二科展'에서 여인상으로 권진규(31, 무사시노 미술학교)씨가 입선, 1952년 9월

조택원의 대표작 '가사호접'
시인 정지용이 작품명을 지어

무용가 조택원이 1933년 독립하여 2월 경성공회당에서 연 개인발표회에서 '승무의 인상'을 공연하였다. 이 작품은 장삼에 고깔을 쓰고 추는 춤이다. 1943년 시인 정지용이 '가사호접袈裟胡蝶'이라는 제목을 지어줬다. 두 사람은 휘문고보 선후배 사이로, 정지용은 조택원의 과외 선생이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민속예술제'
한국민속예술단, 무용극 〈춘향전〉 공연

무용가 강선영, 안나영, 김문숙(조택원의 부인) 등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민속예술제에서 무용극 <춘향전>을 공연하였다. 공연 중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는 사고가 일어나 최연소 단원이었던 이생강이 대금 독주로 위기를 넘겼다. 한국전쟁 때 UN참전국군대의 위문공연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부산에서 살던 그는 1955년 서울에 올라와 강선영의 집에 머물며 무용 반주를 해 왔다.

가극과 영화음악 발표기념회

전시작곡가협회에서, 가극 <콩쥐 팥쥐> (김대현 곡) 와 영화 <낙동강>(윤이상 곡) 발표회를 1952년 3월 8일에 열었다.

제1회 판소리 유파발표회
권삼득 탄생 2백주년

1971년 7월 5일, 국립극장에서 열려, 박봉술, 박녹주, 박동진, 성찬순 등 판소리 명창과 고수 김명환, 김득수 등이 출연

오손도손 음악가 마을

한국전쟁 후 삼선동 성곽 아래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성악가 이관옥과 한규동 부부. 한국전쟁 후 집을 구하던 후배 음악가 첼리스트 전봉초의 가족에게 아랫집 한 채를 내어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던 두 집은 가족처럼 어울려 지냈고, 몇 년 후 전봉초의 가족이 근처로 이사하며, 만주 신경교향악단에서부터 함께 활동하던 바이올린 연주가 이봉수에게 넘겨주었다.
또 다른 이웃으로 정한숙 소설가가 있다.

사진은 이관옥 · 한규동, 전봉초 부부

우리집

정한숙

내가 사는 집은
좁은 길 빽빽한 달동네
동서남북 탁 트여 머물 것 없어

산 위에 흰 구름
희고 또 흰 마음
누가 그 마음 알랴
때로는 번개 쳐 비 오면 조용하고

눈 뜨면 생각나 붓 들고
개구장이 어린 자식 키우며
봄비와 가을서리
눈 나리는 새해 맞기 몇 해인고

..... 후 략 .....

박고석, 〈정릉리 풍물〉, 1958

성북동

김광균

우리집 마당을
두어 그루 소나무가 지키고 있다.
소나무는 늙어서 등이 굽었고
그 굽은 등으로
황혼을 타고 조용히 저물어 오는
하늘을 받치고 있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나무 밑에 앉아
진로를 마시며 거리를 내려다 본다
세월이 얼마간 흐르는 동안
나는 소나무와 친구가 되었다.

술잔을 놓고 무연憮然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소나무는
지나는 바람에 서걱거리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살아왔기에
그리 주름살이 늘었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 후 략 .....

윤중식, 〈성북동 스케치〉, 1971

문화예술인의 집

문화예술인의 집
문화유산 · 문화기관
* 성북구 내 거주지를 모두 표시하였다.
성북동길
김광균
변종하
변종하미술관
이홍근
신영상
방인근
정탁영
임송희
김용준 / 김환기
서세옥
이규선
이태준
수연산방
박태원
한용운
심우장
한운사
강선영
정한모
정한숙
전광용
송영수
유치웅
김환기 · 김향안
염상섭
송영방
김기창 · 박래현
윤중식
전성우
간송미술관
전형필
조지훈
이어령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전前 성북고등학교)
정환섭
윤이상
최순우옛집
최순우
서울과학고등학교
(전前 보성고등학교)
이어령
김광섭
이인범
채동선
장승업
성북동길
한성대입구역
성북구
정릉동
장위동
길음동
석관동
월곡동
성북동
돈암동
종암동
동선동
동소문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한묵·이중섭
박고석·고은
김대현
조영암
차범석
신경림
최정희
박경리
박연희
조연현
최만린
박계주
박세원
국민대학교
금수현
계용묵
정릉시장
김성환
박화성
신경림
정릉
이리랑고개
안수길
박계주
미아리고개
성북동
안동림
표승현
김충현
박병래
김내성
변관식
전광용
김진걸
전수린
권진규 아틀리에
권진규
신동엽
삼선교
혜화동
양주동
윤오영
강창규
이생강
이어령
보문역
오영수·오윤
박완서
정한숙
장우성
주요섭
김종하
이은상
임석재
김동리
전봉초
한규동·이관옥
(전봉초 / 이봉수)
정한숙
김종영

문화유산

심우장
성북구 성북로 29길 24
서울특별시 시도기념물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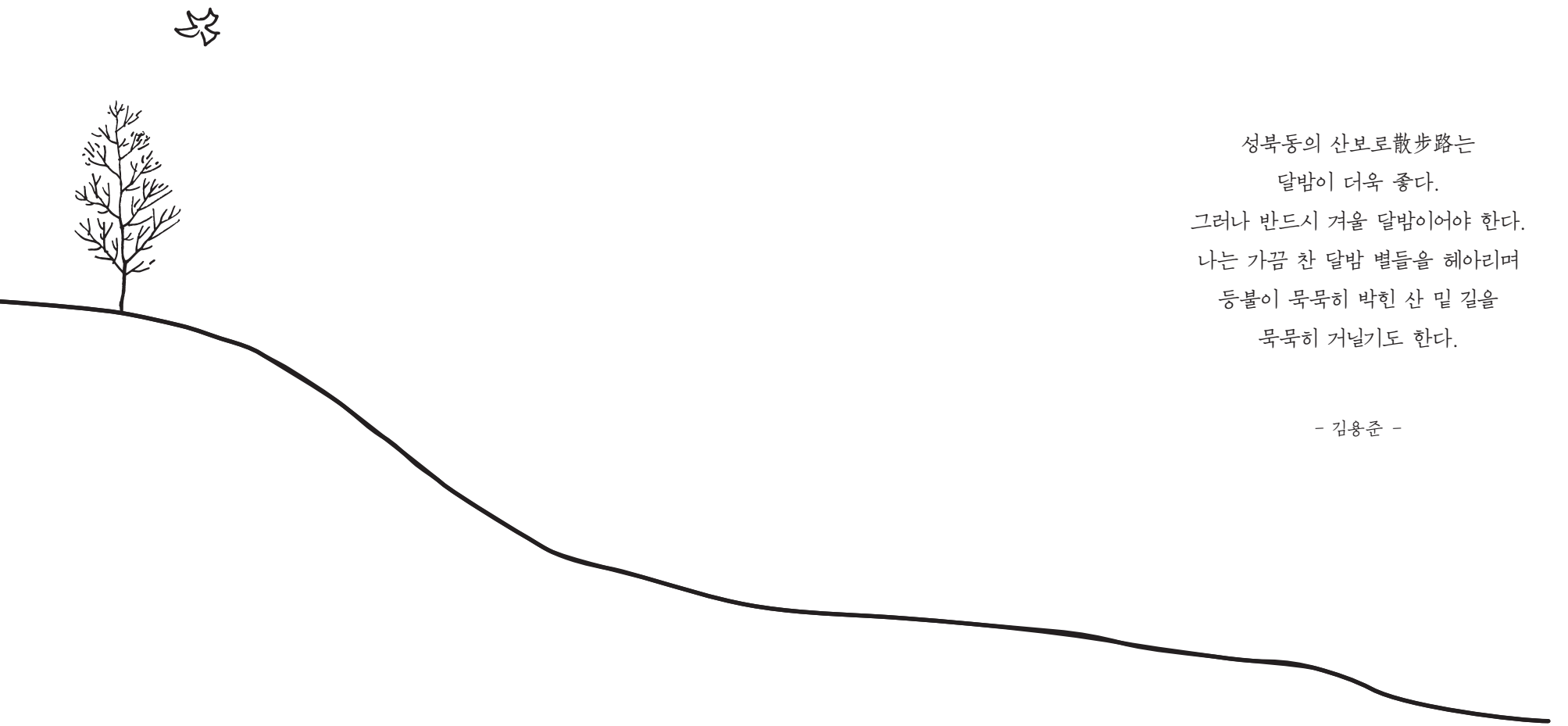
간송미술관
성북구 성북로 102-11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

이태준 가옥 (수연산방)
성북구 성북로 26길 8
서울특별시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최순우 옛집
성북구 성북로 15길 9
등록문화재 제268호, 시민문화유산 1호

석은변종하기념미술관
성북구 대사관로 3길 43

권진규 아틀리에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2-15
등록문화재 제134호, 시민문화유산 3호



성북동의 산보로散步路는
달밤이 더욱 좋다.
그러나 반드시 겨울 달밤이어야 한다.
나는 가끔 찬 달밤 별들을 헤아리며
등불이 묵묵히 박힌 산 밑 길을
묵묵히 거닐기도 한다.

- 김용준 -

색인

이름 | 쪽수

강선영 74, 93
강세황 86
강창규 70
계용묵 12, 18
고유섭 84, 87
고은 35, 43, 59
고희동 28, 46, 86
구상 30, 59
권삼득 93
권옥연 52, 92
권진규 65, 92
금난새 81
금수현 79, 81
길진섭 15, 28
김광균 28
김광림 34
김광섭 10, 11, 19, 20, 25, 26, 30, 31, 56, 70
김구용 32, 35
김기림 12, 28
김기창 33, 47, 48, 49, 61, 87, 92
김남조 30
김내성 24, 25, 26, 31
김대현 79, 82, 93
김동리 18, 21, 23, 26, 27, 31, 39, 42, 90
김동인 10, 14
김동조 79
김동진 14
김득수 93
김말봉 26, 81
김명환 72, 73, 93
김문숙 93
김벽산 8
김성환 51
김세중 67
김수근 59, 70
김수영 25, 26, 30, 35, 60
김영랑 11
김용준 15, 16, 17, 28, 33, 46, 56, 57
김용진 46, 69
김용환 51
김원일 26
김유영 12
김유정 12, 22
김윤수 63
김은영 28
김은호 48
김응현 69
김일구 73
김일엽 9
김정설 27
김정희 15, 35, 86
김종삼 25, 34
김종영 64, 66, 67
김종하 60
김주영 26
김중업 19, 70, 87
김지하 63
김진걸 74
김진진 75
김채원 21
김충현 52, 69, 90
김태연 80
김향안 17, 21, 28, 29, 56, 57
김현승 26
김홍도 46
김환기 17, 21, 28, 30, 33, 56, 57, 58, 87
김환태 12
김희갑 11
노수현 46, 50, 69
노천명 19, 21
도상봉 85
마해송 21
모윤숙 13, 19, 21, 26, 30
목일신 79
민태식 69
박경리 27, 39, 40, 59, 90
박경용 26
박계주 24, 25, 30, 31, 91
박고석 51, 58, 59, 60, 92, 94
박노수 47, 52
박녹주 93
박동진 93
박두진 11, 27, 31, 33
박래현 48, 61
박만조 73
박목월 11, 21, 26, 31, 33
박병래 85
박봉술 73, 93
박봉채 73
박세원 47, 50, 52, 53, 54
박수근 41, 51, 60, 87
박승구 67
박연희 21, 25, 29, 30, 35, 60, 91
박완서 40, 41
박용구 31
박재삼 32
박종화 10, 21
박초월 73
박태원 11, 12, 23
박화성 12, 13, 30
방인근 10, 12, 25
배렴 28
백철 11, 21, 24
법정스님 53
변관식 46, 47, 92
변영로 9
변종하 62, 87, 92
서기원 42
서세옥 50, 52, 53, 55, 92
서정주 26, 28, 42
서항석 10, 11, 19, 90
성찬순 93
손응성 59
손진태 85
손재형 69,86
송만갑 72, 73
송석하 85
송순섭 73
송영방 52, 53, 55, 91
송영수 66
송지영 25
신경림 44, 53, 91
신동엽 41
신석초 28
신영상 52, 53, 55
신윤복 46, 86
안견 46
안기영 77
안나영 93
안동림 35, 42
안수길 12, 25, 26, 35
안숙선 73
안중식 46
앙드레김 60
양주동 10, 11, 14, 90
염상섭 9, 10, 14, 25, 26, 31, 90
오경환 63
오광수 87
오상순 9, 31
오상원 42
오세창 68, 85, 86
오영수 23, 30, 32, 63
오윤 63
오장환 28
오정희 21, 26
유영국 58, 92
유치웅 52, 68
유치진 10, 11, 12, 26
유치환 31
윤백남 10
윤석중 10
윤오영 22
윤이상 14, 33, 78, 81, 82, 93
윤중식 52, 55
윤후명 26
이강천 18
이경성 87
이관옥 36, 77, 79, 80, 82, 93
이광수 9, 12, 13, 23, 31
이구열 87
이규상 92
이규선 52, 55
이규호 52
이근배 26
이만익 37
이매방 37
이무영 10, 12, 25
이문구 26
이병기 15
이봉구 26
이봉수 79, 82, 93
이상 12, 23, 43
이상범 46
이생강 75, 93
이소란 76
이어령 43, 66
이용희 28
이육사 28
이은상 14, 21, 90
이인범 77, 80, 82
이제하 21
이종명 12
이중섭 31, 43, 55, 58, 59, 60
이태준 11, 12, 15, 16, 17, 23
이하윤 11
이헌구 10, 26
이호철 42, 90
이홍근 84
이효석 12
이흥렬 14
인병선 41
임권택 18
임방울 72, 73
임석재 85
임송희 52, 54, 55
임용연 58
임춘앵 75
장덕 47
장발 50, 64
장승업 17, 46
장우성 47, 53, 64
장판개 72
전광용 30, 36, 37
전봉건 34
전봉초 36, 79, 80, 82, 93
전성우 28, 63, 92
전수린 76
전영택 12
전형필 28, 63, 85, 86, 91
정광수 73
정비석 18
정선 46, 86
정인보 68
정지용 9, 11, 12, 15, 17, 28, 33, 76, 82, 93
정탁영 52, 54
정한모 30, 36, 37, 38
정한숙 30, 36, 37, 38, 80, 93
정환섭 69
조문자 52
조병화 25, 30
조석진 46
조세희 26
조연현 18, 21, 26, 27, 31, 32, 35
조영암 30, 31
조용만 12
조지훈 11, 21, 27, 31, 32, 33, 53, 78, 91
조택원 72, 74, 76, 93
조헌영 32
주영섭 11
주요섭 11
주요한 11, 12
중광스님 31
진홍섭 84, 86
차범석 13, 37
채동선 11, 76, 82
채만식 12
천경자 60
천승세 26, 59
최남선 85
최만린 52, 67, 92
최순우 28, 84, 86, 87, 88, 91, 92
최승희 72
최정희 13, 18, 21, 42, 78
표승현 52, 62
피천득 22
한규동 77, 79, 80, 93
한말숙 13
한묵 58, 59, 60, 92
한성준 74
한용운 8, 23, 32, 43, 68
한운사 36
한주환 75
현제명 77, 80, 82
현진건 10, 14
홍난파 14, 76, 82
황규동 62
황수영 84, 86
황순원 26, 42
황염수 30, 52, 55, 58, 59, 60, 92

출처

▫ 사진
◇ 인용

본문

한용운 ▫ 성유숙 촬영
박화성 ▫ 천승걸 제공
◇ 박화성, 「눈보라는 개이려나」, 『눈보라의 운하』, 여원사, 1964
이은상 ▫ 『노산의 문학과 인간』, 횃불사, 1982
이태준 ▫ 수연산방 소장 ◇이태준, 「난」, 『무서록』, 범우사, 1999
김용준 ▫ 김용준, 『근원김용준전집』5, 열화당, 2002
계용묵 ◇ 계용묵, 「정릉일일」, 『계용묵전집2-신문편』, 민음사, 2004
김광섭 ▫ 김광섭, 『나의 옥중기』, 창작과 비평사, 1976
최정희 ▫ 서동수, 『한국여성작가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김동리 ◇ 김동리, 『혈거부족』, 백민문화사, 1947
김향안 ▫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제공
박연희 ▫ 박남성 제공
조지훈 ◇ 조지훈, 『방우산장기』,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김종삼 ◇ 김종삼, 「무제」, 『김종삼전집』 , 청하, 1988
박경리 ▫ 토지문화재단 제공
◇ 「정릉의 벚나무」, 『우리들의 시간』, 나남, 2008
박완서 ◇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8
신경림 ◇ 『가난한 사랑노래』, 실천문학사, 2013
변관식 ▫ 〈봄을 바라보는 아틀리에-소정화실의 변관식〉, 동아일보, 1972.1.11
장우성 ▫ 이천시립월전장우성미술관 제공
김기창 ◇ 「동일에 제하여」, 『근원김용준전집』5, 열화당, 2007
▫ 운보문화재단 제공
김성환 ▫ 『나의 육필까세집』, 인디북, 2005
김환기 ▫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제공
▫ 〈수향산방전경〉, 1944, 환기미술관 소장
박고석 ▫ 송기한, 『고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박래현 ▫ 운보문화재단 제공
김종영 ▫ 김종영미술관 제공
권진규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송영수 ▫ 『거친 쇠붙이에 깃든 영혼』, 모란미술관편, 2003
◇ 『송영수』, 그로리치화랑, 1986
최만린 ▫ 최만린 제공 ◇최만린 인터뷰 중
박봉술 ▫ 〈박봉술 춘향가 전집〉, 예술기획탑, 1971
윤이상 ▫ 〈윤이상을 기억하며-10주기 기록사진전〉, 통영시, 2005
금수현 ▫ 전혜금 제공
최순우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 학고재, 2002

부록

◇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추억」, 『영원으로 가는 나귀』, 신아출판사, 2005
◇ 이호철, 「〈오돌할멈〉과 횡보」,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 양주동, 「분식기」, 『양주동전집12』, 동국대학교, 1998
◇ 서항석, 「돈암동에 새 집 짓고」, 『서항석전집』5, 하산출판사. 1987
◇ 〈조선 문단 창간은 이달 하순경에〉, 동아일보, 1924.9.11
◇ 김충현, 〈시엽산방팔영〉 병풍, 1978
◇ 신경림, 「멋과 지조 조지훈」,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2004
◇ 박연희, 〈고 박계주형의 영전에〉, 동아일보, 1966.4.9
◇ 최순우,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 학고재, 2002
◇ 〈현대문학〉, 경향신문, 1955.4.20
◇ 〈태조왕건 바통 이을 새 연재 소설〉, 경향신문, 1969.4.2
◇ 〈문예 창간호출간〉, 경향신문, 1949.7.19
◇ 이기웅,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성북, 100인을 만나다

발 행 성북구청 홍보전산과
주 관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www.nt-heritage.org,
02-3675-3401
기획·원고 송지영, 심지혜
진행보조 박원식
제 작 에이디솔루션
디 자 인 디자인 브릭스
발 행 일 2015.2.24